朝鮮日報 夕刊 二十三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쳬코屈服의 波紋・

호자內閣總辭職後 軍部內閣遂出現

시로뷔將軍을首班으로 쳬코國에政變到來

【프라하二十二日發同盟】 호자內閣總辭職의 뒤를바더 二十二日 國軍總監시로뷔將軍을 首班으로한 新쳬코軍事內閣이 成立되엿다

【프라하二十二日發同盟】 호자內閣總辭職의 뒤를니여 二十二日午後 쳬코新內閣組織에 成功한 新內閣은 前內閣重要閣僚에 새로 슬로바키아人民黨代表를 加하고 軍部로부터도 시로뷔將軍等二名이 入閣되여 軍事內閣의 色彩가 强하다 主要閣僚는 如左하다

首相兼國防相 시로뷔將軍(新) 內相 야・슈르니(國民黨留任)
外相 커밀・클로프타(官僚、留任) 藏相 카・엔갈포스(官僚、留任)
法相 워자밀・파이아노르(슬로바키아人民黨、新任) 鐵相 엠・카메니키(新任)
土木相 노사르將軍(參謀次長新任) (寫眞은 호자首相)

시로뷔將軍은

【프라하二十二日發同盟】 수데텐問題處理失敗의 責任을지고 總辭職한 호자首相에 代하야 國民의 要望을지고 登場한 쳬코首相 쟌・시로뷔將軍은 國軍總監으로서全軍을 指揮號令하든 쳬코軍部의巨頭이다 大戰中 쳬코義勇軍司令官으로서 露西亞軍과 協力하야 獨逸과싸운일이잇는 親蘇支持者로 有名하다 戰爭中 한편눈을일헛는바 獨眼的將軍存在는 쳬코守護의 表徵으로서 一般大衆의 人氣의 焦點이되여잇다

文相、首相을訪問

【東京電話同盟】 荒木文相은二十二日午前八時半 荻窪의別邸에近衛首相을訪問 事變下의 敎學諸對策에關하야 各種의 意見을交換하엿다

匈、波兩國政府도 自決權正式要求

【부다페스트二十二日發同盟】 匈牙利政府는 二十二日쳬코政府의 웨스텔스하임公使를通하야 쳬코政府에 對하야 쳬코國內匈牙利人에對하야 주데텐獨逸人에게許與한거와 同樣의待遇를 許與하라고要請한覺書를 通達한旨를 發表하엿다

【프라하二十二日發同盟】 쳬코駐劄 波蘭公使파페ー氏는 二十二日클로프타外相을訪問하고 쳬코國內의 주데텐獨逸人에 준것과 가튼待遇를 波蘭人에게도 賦與하라는旨의 通告를하엿다

쳬코議會를召集 주地方割讓附議

【프라하二十二日發同盟】 베넷슈大統領은 二十二日 호자首相以下各閣僚의 辭表를 受理함과同時에 直時議會를召集 주데텐地方割讓을 附議하기로되엇다

프라하市內에는 二十二日朝來 盛히愛國的示威運動이 擧行되고잇는데 後繼內閣組織에當한 시로뷔將軍은國民의 自重을 要望하야 左와如히 演說하엿다 쳬코陸軍은 現在아직 動搖하는일없이 國境을 守備하고 政府의 命令을 기다리고잇다 쳬코軍司令部는 保持할수잇는 모든것을 保持할 決意를 하고잇다 諸君은 秩序를維持하고 平靜을保持하기바란다

少數民族均等待遇에 獨伊意見一致

【羅馬二十二日發同盟】 駐伊獨逸大使맛켄센氏와 匈牙利公使 뷔니니男은 二十二日午後 前後하야 치아노外相을訪問、쳬코問題에關하야 種種으로 意見을 交換하엿다 同席上챠노外相은 쳬코國內 少數民族에 特等待遇를 與할必要를 强調하엿는데 匈牙利案을 全的으로 支持하기로 獨伊의 意見이 一致되엿다고한다

英政府撤還命令 駐쳬英國公使館婦女子에

【프라하二十二日發同盟】 英國公使館婦女子는 二十二日午後至急列車로 프라하府로부터 撤退하도록 本國政府로 부터命令을 바덧다 詳細한 事情은 不明하다

米陸軍航空司令 오少將墜落慘死

【바ー방크加州二十一日發同盟】 米國陸軍航空司令 오스카・웨스트오바ー少將은 二十一日바ー방크의上空에서 親히軍用機를 操縱飛翔中 墜落慘死하엿다 塔乘中의 할・바인스軍曹도 即死 한바웨스트오바ー少將은米國陸軍中의 將秀한 名飛行家임과同時에 航空機에對한 世界的權威로써 名望이노팟다 同少將은 千八百八十二年生으로 享年五十五이다

關係當事者의 自重을要望

會談後英首相聲明發表

【고데스베르히卄二日發同盟】 쳄벌린英首相은 히틀러總統과의 第一日의 會談終了後 卄二日夜 宿舍페델스베르히호텔에서 左와如한 簡單한 콤뮤니케를 發表하야 關係各國當事者의 自重을 要望하엿다

此際모든 關係當事者가 쳬코에對하야 交涉前途를 困難케하는 事態의 發展을 取하지안는等方針을 決定할것은 極히重要한일이다 英國首相은此際各當事者가 秩序維持에 努力하고 紛議의 原因이 될만한 行動은 一切이것을 避하기를 衷心으로 希望하는바이다

英首相聲明은 獨逸에의警告가아님 히總統側近者談

【고데스베르히二十二日發同盟】 二十二日夜 히틀러總統側近者는 會談終了後 會談의經過에關하야 獨逸側의見解로서 다음과가티말하엿다

英國側의 콤뮤니케는 完全히 一方的의것으로 勿論獨逸에對한 警告는아니다 아마도 英國國內의 反對派에對한 제스추아의 意味가 多分잇는것이아닌가한다

英獨會談經過接受코 英藏相重要協議開催

【倫敦卄二日發同盟】 英國政府는 午後 會談終了後 發表될豫定한 公式콤뮤니케는 二十三日이다 히틀러、쳄벌린兩巨頭會談의 經過를 重要視하고 바가잣든及 首相官邸에서는 케른의英國大使館으로부터 到着된報告를 接受하고잇는 模樣인바 卄二日夜 會談經過에關한 쳄벌린首相으로부터의 第一報가 到着하자 首相代理사이몬藏相은 호아內相 인스키프國防調整相 맥드날드植民相等을 招致하야 重要協議를하엿다 一方官邸外의 小와이드홀一帶에는 英佛解決案反對를 高唱하는 示威運動이 盛히擧行되고잇다

시로뷔首相登場에 獨逸側不滿

【伯林二十二日發同盟】 獨逸官邊에서는 쳬코의호자內閣總辭職의 뒤를이어 國軍總監시로뷔將軍이 新首相으로서 登場한데 不滿의 色을示하고잇는바 二十二日나치스機關紙베오바하트紙는 시로뷔將軍을 親蘇派라고하야 左와如히攻擊하고잇다

쳬코新首相시로뷔將軍은 쳬코國民으로부터 親蘇派의巨頭로指目되고잇는바 理由는 업는바가아니다 그는 反獨의異端者스모의數를 率하는 軍國主義者로 戰爭의 冒險을무릅쓰려하지안는사람이다 베네슈大統領이 波蘭新首相에 任命한것은 重大한 危險을 孕胎케하는것이다 二十二日夜 新內閣의成立과 時를가치하야 쳬코國軍新部隊의 주데텐地方移動이 報道되고잇는것은 偶然한일이안이다 어쨋든 그의 눈에도 明白한것이다

波蘭軍大部隊 쳬코國境에集結

【바르샤바二十二日發同盟】 쳬코國內의 少數民族自決要求에 關하야 波蘭政府의 强硬態度가 注目되는此際 二十二日 바르샤바 通信데게支局의 報道에依하면 目下적어도 一個軍團의 波蘭兵이 波蘭쳬코國境에 集結하고잇다한다 特히 二十二日朝來데쳰地方에는 國境에서 도라오는 波蘭兵이 續續集中 다시 쳬코國境가까이 砲兵隊가잇는等 波蘭쳬코國境의 緊張은依然解消되지안는다

주地方割讓報道에 獨人歡喜亂舞

【에게르二十二日發同盟】 쳬코政府가英佛兩國에屈服하야 드듸어 주데텐割讓에 同意하엿다는報道는 二十一日夜 주데텐各地에傳하야 首尾如何를 待望하고잇던 全獨逸人을 歡喜亂舞시켯다 그中에서도 주데텐地方의에게르(헤브)市는 二十二日朝來家家戶戶에 스왓치카의 旗가揭揚되고 市民은 모도街頭에汎濫하야 相互不知者同志가 相擁하야 喜喜樂樂狀態로 到處에 感激的情景을現出하고 只今은 直時祖國에歸還하게될날을 待望할뿐이라는 氣分이보인다 昨日까지 嚴重하게 市街에出現하던 쳬코憲兵警官도 全然거림자를감추고 治安은 주데텐黨員에依하야 維持되고잇다 又쳬코國境은 警備隊에依하야 閉鎖되엿던바 주데텐地方의 獨쳬國境은一齊히再開되엿다 如斯히 最近數個月 晴雨豫斷을 不許하던 주데텐地方에는 벌써平和가왓다

歐洲平和를左右할 第二次英獨會談開始

前後三時間餘의協議續行

【고데스베르히卄二日發同盟】 쳄벌린英首相은宿舍인 페델스베르히에서 少頃後二十二日 午後四時隨員을다리고 會見場所인 고데스베르히市의 드레젠호텔로 드러가 히틀러 總統과의間에 마즈내 쳬코問題에關한 最後案을 決定할 第二次會談을 開始하엿다 쳄벌린首相은 얼마큼 疲勞한듯이보이나 悲壯한 決意가 眉間에 나타나잇다

【고데스베르히卄二日安藤同盟特派員發】 歐洲平和의鍵을 쥐고잇는히틀러 쳄벌린兩巨頭의歷史的第二次會談은 全世界의 視聽을集中하고 二十二日午後 四時 고데스베르히市의 드레젠호텔에서 開始되엇다

同日午後一時 고데스베르히對岸의 페델스베르히 호텔에投宿한 쳄벌린首相은 午後少憩後 헨더슨駐獨大使 스트랑크中歐局長 윌손政府顧問 말킨 法律顧問을 帶同하고 下山 라인河의 나룻배로건너 午後四時前沿道를 埋沒하는數千의 市民歡呼裡에 히틀러總統의宿舍 드레젠호텔에 到着하엿다 쳄벌린首相은 直時會見室로 되어잇는 二層大廣室에 入하야 通譯으로서立會하는 獨逸外務省員 슈미트駐獨 英國大使館 一等書記官 카ー크파트리크氏를除한外 一切의餘人을 避하고 會談을 開始하엿다 어와가티 外人을 排除한會談을하거 二時間二十分後午後六時二十分 一旦會談을 停止하고 休憩室에서 기다리는 립벤트로프獨外相 헨더슨英大使以下 帶同隨員等一行을 參加시켜 다시 協議를 續行約一時間에亘하야 協議하고 午後七時十五分第一次會談을 終하엿다 이와가티하야 쳄벌린首相以下英國側代表一行은 리펜트로프外相의 餞送을바드면서 會談의結果 如何를기다리고잇는 市民의 歡呼中에 對岸의 宿舍페델스베르히호텔에 歸還하엿다

그러고 兩巨頭의 會談은 二十三日도繼行할豫定이다 (寫眞은 쳄벌린英首相과 히틀러總統)

蘇聯의爆擊機 쳬코로續續輸送

【伯林二十二日發同盟】 蘇聯의對쳬코援助를期圖하고 各種의 臆測이傳하고잇는此際 DNB通信社의 報道하는바에依하면 二十二日쳬코東部國境近處의 팔트뷔츠飛行場에 突然最新型 蘇聯雙發爆擊機二十二臺가 到着 다시보ー란니飛行場에도 同型蘇聯爆擊機十八臺가 到着한旨를報道하고잇다 또 蘇聯飛行將校一團도 二十二日 쳬코에 到着하엿다고 하나 그數는 判明되지안엇다

辭令

(京城第一)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 石田 キテ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七等) 補京城第一公立高等女學校敎諭 (全南) 朝鮮產業技師 會田 重吉
高等官三等으로待遇 (京畿道府技手) 高木春太郎
任朝鮮土木技師(七等待遇) 補京城府土木技師 (穀物檢査所屬) 東島 貞一
任朝鮮產業主事(七等待遇) 補平安南道產業主事 總督府稅務監督局副事務官 川上 親豊
依願免本官

瑞昌西部戰線서 頑敵을猛攻擊!

重壘한山岳地帶서戰果擴大

【九江二十二日發同盟】 瑞昌西部戰線에서는 一山一塞를 攻略할時마다 戰況은 益益有利하게展開、夾溪湖方地區一帶를確保한我軍은 二十二日 湖岸에隣接한 湖南岸宋家山及 老山의 堅壘와網湖南方東側을 西方으로 連하는 百雲山 楊抑山 黃金山、嚮堂山(標高八百米)다시 南方가까히 屹立하는 大岡山 美女嶺北山、大德山(標高八百米)等의 重疊한 山岳地帶에 據하야 我進擊을 阻止하려고 死守하고잇는 頑敵에對하야 猛攻猛進을 繼續 敵據點을 逐次로 奪取하고 戰果擴張에奮戰하고잇다 同日은 曇天임에도 不拘하고 我陸의荒鷲는 戰線上空에 出動하야 地上部隊와 協力 도 後續의 補給 交通修理等의各部隊及 衛生隊等도 後方諸山을 完全히 確保하면서 그任務를 遂行하고 全軍의 士氣는 益益旺盛하다

瀧關을再次砲擊 隴海線又復運行不能

【○○二十二日發同盟】 山西의最南端風陵渡에 續續進出한 我○○部隊는 前日 猛烈한砲擊을 對岸瀧關에 集中하야 隴海線의 列車運轉을 不能케하엿는데 그後敵은 鐵路를復舊함과同時에 極密히 夜間運轉을 開始하엿스므로 我軍은 二十一日夜 再次瀧關에 大砲擊을敢行 때마침進行해온 列車의機關車를 破壞함과同時에 繼續的猛擊으로써 同線을 또다시 運轉不能에 陷케하엿다

第十七條採擇과 國府外交部聲明

【香港二十三日發同盟】 重慶來電에依하면 國府外交部 스폭스맨은 昨日聯盟第十七條採擇에對하야 如左한聲明을發表하엿다 國府는聯盟이 支那代表의 要請에依하야 規約第十七條를 採擇한것에 多大한 敬意를 表한다 이는 極東에의 事態重大性이 至今엔 聯盟規約으로보아 無視할수업는것을 表示하는것이다 무릇 世界强國으로 國際正義와 世界秩序의維持를 企圖하지안는者는업슬것이다 日本政府는豫想대로 이招請을拒否한바 聯盟은第十七條에依하야 充分한手續全部를 取한것이므로 日本의侵略을 阻止하고戰爭行爲를速히 中止케 하기爲하야 第十六條를 援用할것이다 또 米國이 聯盟과步調를 合하야 極東事態에關心을 가지기를希望한다

我國回答에 聯盟側滿足을表明

【쥬네브二十二日發同盟】 國際聯盟理事會의 招請에 對한 帝國政府의 拒否回答은 二十二日午後聯盟事務局에 到達한바 聯盟側에서는 미리 日本側의 拒否를 豫期하고 잇섯든 關係로 格別히 感得하는 바도 업스며 오히려 日本側의 回答의 措辭의 丁寧함에 滿足을 表明하고잇다

快活嶺東西線確保

【○○二十三日發同盟】 商城으로부터 沙河에 進出 다시 西進한 有力部隊는 二十一日早曉 大別山系의 磨盤山附近의 敵陣을 一氣에 突破하고 餘勢를 몰아서 다시 進擊을繼續 同日午後十一時頃에는 沙河南方四粁 馬黃沖南方高地 快活嶺에 據한敵을 驅逐하고 一氣에 그堅陣을 突破한後 同地東西의 線을 確保하엿다

【○○二十三日發同盟】 商城으로부터 西北方에 分進 二十一日午前白雀河 上流의 雙輪河附近에 進出한 我主力部隊는 同日午後 雙輪河 南方八粁의 白雀園西方 十粁의 地點에서 約三百의 敵이 蠢動하는것을 探知하고 即時 이를 擊破하엿다 白雀園附近에는 卄日까지 約三千의 敵이잇슨바 我軍의 進出을 探知하자 南方에 退却한 模樣이다

隘口街猛爆擊

【南京二十三日發同盟】 中支軍二十三日午前十一時發表

一、隘口街戰線 地上部隊進擊에 協力한前島部隊는 二十二日 暗雲低迷하는 廬山山系를 突破하고 隘口街附近에잇는 敵砲兵陣地를 猛爆한다음 敵兵站地인 黃塘舖를 空襲、同時에 該地附近部落에 集結中인 敵部隊를爆擊 多大한 損害를 주엇다

二、廣濟戰線 地上部隊의 戰果擴張에協力한 吉田、釘宮各部隊는 執拗한 逆襲을企圖하고잇는 廣濟의 頑強한敵에 反復猛擊을 加하야 直接攻擊戰鬪에 協力한外에 或은 敵의動靜을 偵察看取하고 或은彈藥等의 補給을遂行하야 間接協力에 努力하엿다

楊柳山을猛攻

【小坊王二十二日同盟特派員發】 陽新東方을 猛進中인 我軍은二十二日午後二時 坡磷尖을 占領하고 다른部隊는 二十一日夜白丈山의 頑敵을 驅逐하야 二十二日朝來 楊柳山을 猛攻中으로 陽新縣一帶의 敵은 여며 我制壓下에 들게되엿다

敵退路完全遮斷에 新店頑敵孤立無援

【○○二十二日發同盟】 商城으로부터 大別山系의 堅壘를 越하야 武漢中原에 通하는 大別山을 橫斷道路를攝口를 扼하는 要衝新店에 對하야 去十九日以來連日 激戰하는 冷雨中에 果敢한 攻擊을 續行하고잇는 ○、○○精銳部隊는 執拗한 敵의抵抗을 壓迫하면서 兩側의 峰을 넘어 二十一日 新店南方二粁에 進出 一擧에 그退路를遮斷하고 新店의 頑敵을 完全히 「독안의쥐」로 만든 一方 去十九日夕刻大別山을 貫通하야 商城으로부터 麻城에 至하는 軍工路北方의 入口 沙窩의 堅壘를 屠하고 重疊한 山岳間을지나서 南走하는 隘路를 進擊中의 ○○部隊는 二十二日 午後 벌써 河南湖北省境가까히進出하엿다 이我兩翼部隊의 大別山橫斷二箇線의隘路口制壓은 漢口의 命脈線인大別線에 大恐慌을 勃起하야 敵은 我前面에 增援하고 我進擊阻止에 蹶起하고잇다

一文字山의 敗殘兵潰走

【阜子二十三日發同盟】 二十二日深更부터 今二十三日朝에 亘하야 阜子南方의敵은 自己의幻影에 威嚇을感하면서 戰線各方面에 亘하야 猛烈히迫擊砲 機關銃小銃의射擊을 퍼부어온바 我方은 無益의射擊이 效果가업슴을 알고 相對도하지안코 冷靜沈默을 繼續 我軍에는 損害는 殆無하며 敵의 直前에는 突然히四圍의 群山에 反響할뿐이다 그러고 一文字山方面에 三百의敗殘兵이 夜襲하여왓스나 我軍은 이를가까히 오게한後大打擊을 與하야 이를潰走시켯다

銘酒 菊松 キクマツ

人事・集會

▲무아氏(南監理敎監督)二十一日入京 元山、鐵原方面巡視次二十三日午前八時二十分車로出發
▲鄭一亨氏(牧師)무아監督同伴元山에
▲鄭勳少佐(朝鮮軍報道班員)數日前부터府內淸進町鄭在雄醫院에入院療養中
▲桑葉寺平氏(總督府土木課長)新京出張中二十二日飛行機로歸任
▲坂本嘉一氏(總督府土木課事務官)同上

八面鋒

◇주데텐州 割讓의 責任지고 호자 쳬코內閣 總辭職。
◇잘한번 못하고 領土를 割讓햇스니 어찌 內閣에 責任이 업스랴。
◇後繼 시로뷔內閣은 軍閥內閣이라니 不平가진 人民彈壓이 그主要任務겟지!
◇그러나 奈何오, 쳬코의 地理的 政治的 運命이 그러케 할바아니랴。
◇鑛山의 德大制를 復活하야 法制化한다고。
◇朝鮮의 有數한 探鑛이 全部德大의 손으로 되엇거늘 이것을 廢止함은 現實을 無視한일。
◇느꺄라도 여겨울 엇게된것은 多幸。
◇九月中의 米輸出은 昨年同期의 三十八倍요, 移出은 五割增이라고。
◇戰爭에 關聯되는限 朝鮮의 產業增殖은 必要!必要!

當選謝禮

今般元山商工會議所議員改選에際하야不肖等이當選의榮을得함은有權者諸位의深甚한同情의賜物로서 기피謝意를表하나이다 (無順)

申泰今 金烈 李容奎 金景俊 金利錫 大田省一 松本五郎 金鎭國 韓君弼 全用斌 佐佐木準三郎 三隅義一 神宮興太郎 德興商店 小林儀三郎 魏楨鶴 元山水產株式會社 小島彥右衛門 藤岡喜一郎 北谷德一

回効散 頭痛과 齒痛에

效力速함에 評判잇는 回効散은 神經痛에도 非常히 잘듯는다고해서 近來어느藥店에서도 평장히 잘팔린다고합니다 論보다證據 한번 試用해보십시요
本舖 東京・大阪 森田製藥所 全國藥店에잇습

高級萬年筆 特約店大募集
新發賣品 國益號萬年筆 宣傳の爲め大特價販賣す
各種高級萬年筆優秀品大特價販賣す (型錄無代進呈)
大阪西本線柏原町驛東 天賞堂本店

빅타ー레코ー드
伽倻琴名盤集
伽倻琴의名手 吳太石 沈相健 李素香 三氏 (KT―1185―1190)
의佳作六枚를特選한 後世까지悠久히傳할名盤集!
全六枚入 紙函 金六圓十六錢

東亞織物販賣株式會社 在庫豊富
秋夕前貝色에는東亞織物로
京城瑞麟町

正眞蜂蜜
岐阜市島 岐阜島養蜂場

나왓습니다!
"少年"十月號
조선제일 재미잇는 雜誌
一部十錢(送料一錢) 一年先金・一圓十錢
振替京城八七八五番 電話本局一一九一番
朝鮮日報社

★十月號主要內容★
傳說 少年 岩・申鼎言
★곰은왜돌인가(科學)・金思駿
★귀염이두개(童謠)・尹福鎭
★고기잡기내기(漫畫)・玄在德
★菓子의마지막(音樂)・洪蘭坡
★번개와벼락(理科)・沈亨弼
★지봉숙의王女(小說)・李雲谷
童話 四十王子・趙風燕
小說 少年探偵團・朴泰遠

特別揭載 少年探偵小說
拳球試合・玄德先生作 鄭玄雄先生畫

優良万年筆
セフティ (特許合理金ペン付) (品質保證)

神經痛 류마치스에 ネウロジン (錠劑)

한個 한個 먹을수록이 상하게도 기운이나는 맛난菓子!
一個五錢
京城府南大門通
豊國製菓株式會社

每月月報發行
卸 藥 賣藥 新藥 藥品
新規開業者는 特히相談에應함
株式會社 木村藥房
京城府本町四丁目

特許石油下向ランプ

特許ガソリンランプ

カタログ進呈
合名會社 柴田商店 名古屋市中區

深刻한南朝鮮旱災 應急救濟策을講究
土木費를復活시켜勞賃을撒布하여 第二豫備金에서救濟費支出

판북(慶北)에는 수재 영남(嶺南)에는 한재 즉 南(北嶺南事)으로 인명재산에 막대한피해가잇는것은 어미 일반의주지하는사실이어니와 경남(慶南)의한해가 한남(咸南)의 수해보다 그피해정도가큰것만은 일반이상상조차못하던것이다 한남의 수해는 인명의사망이만허서 세상에서 놀라지안흘수업는 참경이엇스나 실상 재산에 대한 피해는 경상남도에 비하야 그다지 크다고할수는업다 경상남도의 한해는 인명의직접피해가업는 대신에 농작물피해가 막대하야 재산피해정도로보면 도저히 함경남도에 비할정도가아니다

그리하야 이와가튼 대한재를 구제하는것은 시급중대한 문제이므로 총독부에서는 얼마전부터 그대책에대하야 고심하야오던중 대야경상남도내무부장(大野慶南內務部長)이하 경상남도관계관들을 출부(出府)를 명하야 이십삼일오후二시부터 총독부내무국장실에서
▲大竹內務局長 ▲瀬築土木課長 ▲奧村司計課長 ▲山地理財課長 ▲美根農務課長 ▲下飯坂米穀課長 ▲岸農村振興課長 ▲橋本土地改良課長 ▲柳生社會課長 ▲大慶南內務部長 ▲永總督府社會課事務官
등이회집하야 경상남도한해구제대책협의를 개최하고 비밀리에 그구제대책을 토의하얏는데 그내용의대개를 듯건데 연기되엇던 각지방토목관계사업에 상당한 국고보조를 주어서 급속히실행하야 그농민들에게 노동임금으로써 위선생활을보상하도록하야 응급구제를하는일방 명춘농경(農耕)비기타 식량공급에대하야 따로예산을세워가지고 지장이업도록할모양인데 이에대한예산은 전부 제이예비금에서 지출하고자방금 수속중이다 그런데 경남한해(旱害)구제대책이 구체적으로결정되는 이외에는 이백이십만 경남주민을위하야 실로 중대한것으로 그결과가 자못 주목되는것이다

酷甚한慶南七郡 要救濟萬四千戶

【慶南支社發】경남도에서는 누보한바가티 한해구제대책을강구하던바 요지음 그구체적성안이되엿스므로 국고보조를바더 시월상순부터 내년오월까지에 일백육십칠만칠천원을 노임으로서 사방공사、도로공사、임도개설(林道開設)、유지개설(溜池開設)등에 산포하고 오십이만삼천원으로서 명년의 나락씨를 배급하리라고하는데 도내에서가장극심한 군은 창령、진주、밀양、함안、의령、하동、김해、동래군이며 피해면적은 칠천수백칠십정보이며 요구제호수는 일만사천사백호라고한다

來日이秋分 이제부터秋夜長

명일이 이십사절기중의하나인 추분(秋分)이다 예년가트면 구력으로팔월중순경에잇슬것이나 금년에는 윤달이끼여서 음력으로팔월초하로가된다 이날은 태양의 황경(黃徑)이 일백팔십도에 달하야 그중심이추분점상에 오게되므로 낫과밤의 기리가갓게되는데 이날부터는 차차낫이짤바지고 소위추야장(秋夜長)이란말과가티 밤이기러지기 시작하므로 애기책읽는소리와 고요한가을밤의 적막을깨뜨리는 다듬이소리가 들려올날도 머지안엇다 또한갓 실과의 열매와 오곡이 다엽으러가니 농가에서는 가을거지하느라고 한창밧블때이며 어느듯여름철기는 씻슨듯이 가시고 벌서먼산에 울긋불긋단풍이 들어가므로 삽삽오오짝을지여 명승고적차자가는 발자취가 번거러워질때이다

馬公에大脅威
市內에馬鼻疽發生
今日京畿道에서防疫道令을至急發布
사람도걸니면죽는다

시내 동대문서관내에서 비저(鼻疽)에걸린 말두필이 발견되여 말가진사람들의 걱정꺼리가생겻다 이십이일 부내 안암정(安岩町)일백십팔번지 짐마차업 장계룡(張桂龍)이 수일전 합부지방에서사온 조선말 여덜필중 한필이 이무서운 전염병에걸려넘어젓고 가튼날 신설정(新設町)일백육십삼번지 김성석(金聖石)이가한필을 사갓섯는데 어도한이병에걸려넘어젓다 그래서보고를바든동대문서에서는 곳이사실을 도경찰부에보고하여 도위생과원의응원을어더 현장에가서 검역해보앗던바 진성비저인것이 확실해지 후은걸린말의 왕래를 금하는동시에 그시체의운반 또는이병독이 부러잇슬듯한 물건의운반을 엄금하엿는데 약 명령위반자에게는 엄벌에 처하기로 되엿다 한편 만일을 염려해서 하성시내와 인접각군 경찰에명하야 기관내에잇는말 여두에 대하야 일제건강진단을 시하리라는데 이병은 말에게는 물론 사람에게 전염되는 경우에는 호열자에 필적할 전염병인만큼 생명을 빼앗기게되는 무서운병이니만치 위생당국에서는 방역에 애쓰고잇다

경기도위생과에서는 도령을발표하여 경성부와 및그부근독도면(纛島面)일대의 사육말(飼育馬)로서 비저에걸린것인지 남은여섯필의 행방을 각처에수배중이다

今日團旗入魂式
明日結團할聯合青年團代表 神宮에서結團奉告祭

명이십사일 경성운동장에서 장엄히거행될 각도연합청년단(聯合靑年團)결단식에 대한 만단의 준비는 이미 정돈되엿거니와 이십삼일에 전구시부터는 총독부제 어회의실에 각도연합청년단 대표자가 회합하야 명일 결단식 거행에관하야 다시 세밀한회의를한후 오후한시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이하 본부간부와 각도연합청년단대표자가 조선신궁(朝鮮神宮)에 회합하야 결단봉고제(結團奉告祭)와 단기입혼식(團旗入魂式)을 엄숙히거행하엿다 그리고 각도연합대표자 약사천삼백명이 경성운동장으로가서 오후두시부터 실지예행연습을 행하엿다 (사진은 입혼식의광경)

虎列刺繼續蔓延 龍岡、南浦에新患者三名

【平南支社電話】향평을 휩쓸고잇는 호열자가 어룸동안 세력이엽엇스므로 어제는 끄치나보다고 다소안심이되엿더니 어십일에 다시 용강(龍岡)에 진성한명 진남포(鎭南浦)에 용의자두명이발생하야 방역당국은 어찌할줄을 모르고잇다 용강군의 신환은 지난십팔일에 발병하야 이십일에 사망한 귀성면최고리(貴城面最高里)여자이지원(李志元)의 바른편이웃사람 김명도(金明道)의 어매 오봉호(吳鳳浩)로서 이십이일오후세시에 발병 다섯시간만에 절명되엿는데 진성으로 결정되엿다 그리고 진남포에서는 항구에 정박중인 어선의어부중에 방정우(方定雨)와 김선필(金善弼)의 두명이 어십이일발병하엿는데 진성의가 농후하야 격리수용하고검변중이다

始政記念日行事 神社參拜와皇居遙拜 國旗揭揚도徹底勵行

시월일일의 시정기념일에는종래 각관공서 학교에서 사무와 학업을 휴지하고 어룻기념하엿섯는데 시국에 다단한금년에는 특히 어기념일의 뜻을 길게하기위하야 다음과가튼 행사를긔시하기로되여 어신어일정무총감으로부터 관계관서에 통첩을 발하엿다 즉 관국폐사(官國幣社)에 하 각신사에서는 당일에제전을 거행하고 총독부국장의 축사(祝詞)를읽고 관공서와 학교에서는 각각대표자를 참예시키는이외에 일반관공리와 민중들도수의로 참배하기로한다 그리고 신사(神祠)의 소재지에서도 역시 일반참배를 하고 신사가 업는 곳에서는 관공서 학교등 적당한 곳에서 황거요배식(皇居遙拜式)을 거행하고 요배를 하기로되엿다 그리고국기게양은 종래와 가티 물론이지만 어번에는 더욱 어를철저하게하기로 되엿다

北朝鮮航空路 다이야決定

경성청진간 오백육십킬로를 공중으로 연락하는정기항공노는 기보와가티 일본항공수송회사(日本航空輸送會社)에의하야 시월일일부터 취항하기로되여 "다이야"는 다음과가치 결정되엿다 사용기는"엠보이"육인승으로 시속이백이십키로 소요시간 두시간 오십분으로 요금은 경성함흥간 십팔원 함흥청진간 이십팔원이다 이『로ー칼라인』은 청진에서 만주항공회사(滿航)『다이야』와 연락되는것인만큼 장차는 주요한항노로서 북선개발상 중요한역할을 할것으로 취항첫날에는 청진에서 성대한 축하연을 하고 도라와 오후일곱시경성에서도 전도를 축복하는 하연을 베풀기로 되여잇는판계로 첫날만은 사용기두기에 임시다이야로 운항하기로 되엿다

▲다이야

京城發	前	九、〇〇
咸興着	前	一〇、一五
同　發	前	一〇、二五
淸津着	前	一一、五〇
同　發	後	〇、三〇
咸興着	後	一、五五
同　發	後	二、〇五
京城着	後	三、二〇

▲十月一日臨時다이야 往路 平日과同一 復路

淸津發	後	二、〇〇
咸興着	後	三、三〇
同　發	後	四、三〇
京城着	後	五、四五

서울서 조반먹고 잠간청진갓다가 다시서울와서 느지점심을먹을수잇는 시대가 다라왓다

琿春과의遞送道路 訓戎局에取扱移管

북조선을통하야 조선과 판계가깁흔 만주국훈춘(琿春)지방과의사이에 내왕하는우편물은 종래훈춘 경원(慶源)간의 자동차편으로 함북경원우편국과 훈춘우정국(琿春郵政局)과의 사히에교환하고잇섯스나 최근 그방면의 교통기관 기타사정으로 말미암아 조선측교환사무취급을 훈융우편국(訓戎郵便局)에 옴겨속달을 도모하기로되여 시월일일부터 실시한다 어로서 동방면의 체송소요시간은 한층가단축되는세음이다

鐵道局囑託醫 會議開催

철도국에서는 전조선철도종업원및 그가족십오만명의보건(保健)위생(衛生)의 일부를마타잇는 철도촉탁의사 칠십일명을 소집하야 이십이일 이십삼일 양일동안 오전아홉시부터 철도국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엿다 서기리사(西崎理事)의 훈시가 잇슨뒤에 철도국원 가족의 보건의료문제에 대하야 토의를진행하고잇다 어십삼일 회의가끗난뒤에는 오후네시부터 동본원사(東本願寺)에서 전조선철도촉탁의사들로 조직된 의우회(醫友會)주최로 조선철도창설이래 종

積年舊惡逐次暴露
核心捕捉은一週後
中央無盡의取調進捗

적발된후 어주일동안 연일연야 조사되고잇는 중앙무진사장 지전(池田)등사부랄의 부정사건은 사건관계자가 만흔것과 사건의 시초가 오래인 판계로 정확한것을포착하기어려울뿐아니라 그뒤 인적(人的)으로는 더확대되지 안엇스나 아직사건의핵심에 도달하기까지 아프로일주일은 더취조하여야겟다하니 핵심에도 달하는날 다시어디로어떠케 사건이버러질지 아직 현편으로는 여하한예상도 허락할수업시 긴장된가운데 사건은 핵심을 향하야드러가고 잇다

強盜와殺人犯 江界署脫走 殺人犯만은追擊逮捕

【江界支局電報】어십이일밤 아홉시경 강계경찰서에 유치중에잇든 살인범한명과 강도범한명이 어동안 몰래 도주하엿다 깜짝놀란 강계서에서는 즉시서원전부를 비상소집하여가지고 추격수사중 살인범은 언봉호(仁風樓)엽 절벽에 숨은것을 발견 체포하엿다 그리고 남어지 강도한명은 아직잡지못하고 계속수사중이다 이들이 다러난 경위를 듯건데 유치장 당번순사가 유치인을 불러내기위하야 유치장문을 여는순간 순사를집어치고 뛰여나간것이라고한다

被檢者十八名
市內支那人事件과는無關한듯 仁川弗潛買事件續報

【仁川支局電話】경성모대약방주인을 중심으로한 외체관리법위반(爲替管理法違反)혐의사건은 인천경찰서에서 연일계속하야 엄밀히 취조하는중인데 경기도경찰부에서 취조하고잇는 경성종로삼정목 모무역상점 사건과는 아무판련이 업스며 취조를 진행함에따라 『딸라』를 사서이익을 취하려한 사실이 나타나고잇다한다 그리고 경기도 경찰부에서 취조하는 사건은 면포(綿布)및와재(藥材)밀수출의혐의라는데 그수출액은 약이십만원가량된다고한다 인천경찰서에서는 어십삼일오전에도 『파우엔드』은행인천대리점원한명을 소환하야자꾸 취조를 계속하고잇는데 그내용은 자못복잡한모양이다 현재유치되여잇다는 사람은 모두 열여덜명이다

教役者聯合會 時局에비치어解散

경성교역자(教役者)연합회가 해산하엿다。 종로이정목 기독교청년회관안에 사무실을 둔경성시내목사와 전도사들의단체 교역자연합회는 시국에비치어 존속할 필요가업다하야 대표자김영주(金英珠)씨외 명의명의로 이십삼일오후종로서에 해체계를

鐵道局弔魂例祭 十月四日에擧行

철도국에서는 오는시월사일오전나홉시부터 룡산철도공원조혼비(弔魂碑)아페서 제이십사회조혼례제(例祭)를 엄숙히 집행하기로되엿다 금년도에 죽은이백륙십위(位)를합하야 합게삼천팔백사십일위이라한다

玉童子遺棄

이십일오후열시쯤해서 부내용두정(龍頭町)일백사십사번지의십구호 박기덕(朴基德)의집문아페다가 누구의소위인지 나은지세주일가량박게는안되는사내아이를 버린것을 사람이발견하고동대문서에 보고해 왓는데 어린애품속에는『팔월어십구일에난아이인데 길를형편이못되여 대문전에버리오니 귀히길러주시요』라는 편지한장이들어잇섯다한다 애기는 얼굴도잘낫고 귀엽기끄지업서 집주인인 전기바씨네가 길르겟다고 어십일일 동대문서에 정식으로 양육계(養育屆)를 내엿다한다

今日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唱歌와童謠 ▲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六時三〇分 라디오 時局 本 ▲七時三〇分 講演▲八時 雜曲
▲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世界偉人傳▲六時二六分 講演▲七時二〇分 歌謠▲七時四〇分 (自上海) ▲八時 講演▲八時三〇分 (城)獨唱▲八時五〇分 (東)物語 ▲九時一〇分 時事解說

來日과모레 豫報는快晴!
休日에氣運좋은 마라면(?)

명이십사일은 추계황령제(秋季皇靈祭)요 그다음날은 일요일이므로 이틀동안 공휴일이 겹처잇서 벌서부터 어이틀동안을 유효하게 지나려는 『쌀러리ー맨』과 학생들의마음을 설레이고잇다 이십사、이십오양일은 경성측후소의 말을 드르면 쾌청이 계속하리라니 자연을 그리는 젊은이들이 대자연의 품에안겨 마음껏 경치를 즐기고 노리를 떠나는사람이만흘터인데 차서 단체 흑은개인으로 단풍을 강산의 유수한여관 장안사(長安寺)

세簡易驛昇格

시월일일부터 경의선(京義線)의 세간이역을 정거장으로 변경하야일반운수영업을 하기로 되엿다

滿員御禮、早朝割引
路傍の石
土曜、日曜ハ午前九時開場
黃金座
但シ午前十時迄ノ入場者ハ 一割引ニ付四十錢 大人

防護團組織 規程成文化
府當局에案作成

국민정신총동원(國民精神總動員)정신에기하야 결성된 경성시내 각방호단의조직강화에 일반이천명의 소질향상을 도모하기위하야 부당국에서는『방호단규정』(防護團規程)을만들고잇는동시 불원에 실시를보게되엿다 종내 경성시내에는 열한개의방호단분단에 일만이천여명이나되는 방호단원이잇스나 그존재는 아무런성문(成文)에의하야 규정된것이아니어서 분단조직내용과 단원의소집등에유감이만흔 방호의 목적을달성하기곤난한점이 잇엇슴으로 그래서 부당국에서는 작년인하야 방공법(防空法)시행된 방공법조시행령 (防空法施行令)중 도지사의 승인을어더 부윤이 방공계획의 실정을 할수잇는 조문에의하야 이번경성부에 방공계획을 설정하기로되여 방공계획안에 방호단을 규정을너허 명문으로 그조직을규정하기로되엿는데 그안은 지난달 사일의 경성지방방공위원회의승인을어더 지금도당국에부하였음으로 느저도시월일부터는 그규정이실시되기로되엿다 경성부에방호단규정에의하야 현재와가티 열한개의 분단(分團)을두며 그아래에 다시 이십삼개소의 단위로 지구방호단(地區防護團)을 만들어조직을강화하야 명령계통을 확립하게될터이라 단원의소질도대단향상될것으로 그실시는 자못기대되는바이다

스포ー츠
普專大勝 對千葉OB에
全日本籠球戰開幕

【東京支局發電】今年度籠球界의 最高峯…日本籠球協會主催의 第十八回全日本綜合男子籠球選手權大會第一日은二十三日午前十一時半早터東京市一橋國民體育館에서 參加한十五個團體의入場式에뒤이어 遠來의覇者 普專對千葉商業OB의第一回戰으로부터 競技의幕이열렷는바 普專軍의攻擊猛烈하야 實力의差로 千葉軍이慘敗하엿다 이로써普專은 第二回戰에드러가 明二十四日午後三時半부터 浦和高校俱樂部對文理大戰의 勝者와對時케되엿다 그리고延專은 今二十三日午後七時四十五分부터 東京帝大出身으로만組織된 學士俱樂部와對戰할터이다

普專 89 (42…47 / 29…21) 50 千葉

【戰況】秋田、栗梁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 普專은 最初부터第一陣으로 對戰하야 特技인速攻으로 大量得點하야 前半에 四十七對二十一로 斷然 리ー드하니 後半에 드러가 第二陣으로 應戰하야 結局 八十九對五十으로 普專軍 無難이 이겻다

運動界人事

▲李鼎白君(延專選手)凱旋人事次 二十三日本社來訪

色鉛筆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협의회가 이십이일 오전아홉시부터 총독부제일회의실에서 비상시다운 긴장속에 뜻깁게 열렷다 ▲전조선각단체대표들을비롯하야 지방연맹의 대표와 민간각층의대표자들이 회합하야 총후의만전을 다할여러가지 의미잇는의견을 토하엿는데 ▲이날회합한분중 유력한위원한분이 회의도마치기전 청내전화를 빌러가지고 그날밤 요리집에기생지휘주기에 대분망 ▲아무리 바쁜연회이드래도 체면이체면! 정신총동원은 행동으로부터라는 총독의 고사는 이런위원에게 옥필요。

天氣豫報

概況 關東中部에잇는高氣壓은 中部以北의 西岸에不連續線을伴하야東進中이다 颱風은 小笠原島의 南西海上과 千島의北東에잇다 高氣壓은 優勢해져서 內地에퍼저잇다 南朝鮮은晴曇不定, 中部以北은 咸南에小雨, 滿洲南部는 비가오며 其他는흐렷스나 中部는 맑고 北海道는흐렷다
豫報 今夜南一時曇 明日은 맑으나 아침은흐리다
昨日最高 二十四度六 最低 十度六 今朝 十一度三 正午 二十二度

淋疾患者에警告!

淋疾治療의 世界的發見으로서 醫界의絕讚을바든 G—U(지유)—사이드는 果然 우리東洋에서發賣되여 試驗한지 近一年동안에 完治者數萬을내여 그特異한効力과 性能에 對하야는 어미世上에서 完全히認證한바되엿슴니다。

G—U(지유)—사이드가 從來의治淋藥과다른點은 그特効因子가體內에서 化學的作用을이르킴으로 注射나洗滌을不要하고 다못一日五 六錠의內服으로 二日乃至五日에 止痛 止膿이된다는 事實로만보아도 그놀라운効力을알수잇슴니다。

그러나 여러분께警告할것은 本劑가試驗的으로 使用케된지 一年未滿에 數萬의完治者를내인 今日에잇서서는 누구나安心하고 使用할수잇는特効藥임을 世上에서認證하게되자 G—U(지유)—사이드와 近似한藥名 理論 廣告等으로 模倣品이반드시생길것이오니 그藥이模倣品인지 안인지를 注意하여十分警戒하시기를 吾人은社會的良心으로 告하는바임니다。

淋治藥特効 淋治藥特効

外務社員急募
貯蓄運動ニ依リ社業多忙ノタメ爾ク有給社員ヲ求ム希望者ハ履歷書送附アレ面會日通知ス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明治生命京城支店
電話本局九番

事業
有利な特許事件の紹介
切手十錢添付申込次第明細規定送呈
本舖 京城瑞麟町 阿留米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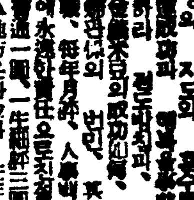
男
事務員一名採用
京城府內黃金町一丁目
三菱商事京城支店

懸賞尋犬
鼠色 雌
龍山三坂通

朝報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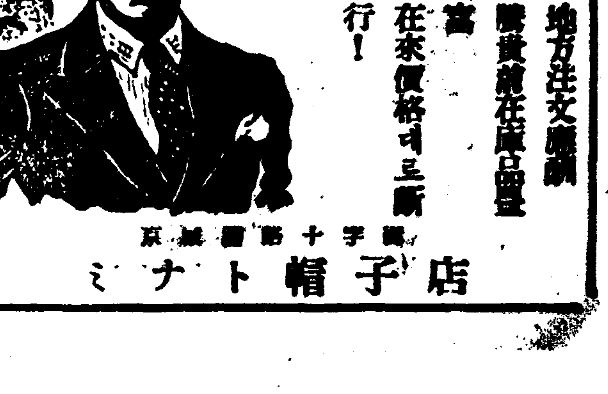
カクブチ
外國繪 米國 獨逸畫 英國畫
畫新着 外各國名畫數百種在庫豐富
現代美術額椽과 外國繪畫를사시랴면
油畫用額椽製造
展覽會出品用額椽
著名畫家의肉筆油畫=特價提供
直輸入 卸問屋
日本額椽商行
京城堅志町八〇 光2322

滿天下人士에告하노라!
東洋唯一 觀相師
新運命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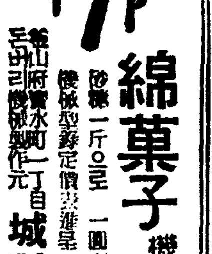


(姜南月先生)
京城府樓上洞六百八十七番地
姜南月觀相所

秋裝엔반다시 ミナト帽子를



ウール 1.00 6.50
フア 8.50 18.00
ベロア 18.00 28.00
地方注文應辦
新貨到着在庫品豐富
在來價格대로販賣行!
京城本町二丁目 ミナト帽子店



綿菓子機械出現
綿菓子一斤으로 一圓의 綿菓子가되는
機械型錄定價表進呈
釜山府寶水町一丁目
城野製作所

待望의新 부터ー헥스한발과
幸福스러운 希望의健康으로
現代體力增進法第三版出來
中央體育研究所

生徒募集
京城工科學院
測量科
▲出願 昭和十三年九月二十一日迄 ▲考査 昭和十三年十月一日
▲六個月卒業 ▲學則請求郵券三錢切手
科目 土地測量學、測量法規、計記、製圖、伸縮圖法、數學、滿洲語、實習
京城府蓬萊町一丁目 電話光一七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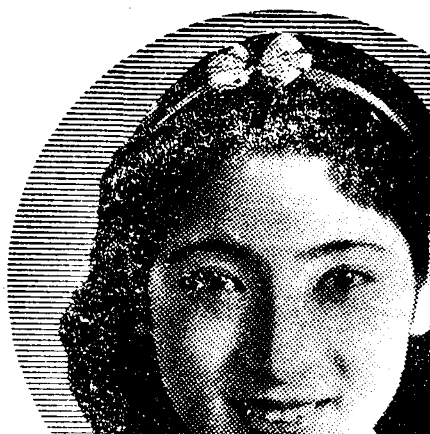
生徒募集
土木課 測量課
大田工科學院
▲九月末日限出願 ▲考査日 十月二日 ▲入學日 十月五日
▲學則要二錢切手
大田府大東町

京城唯一ノ認可學院。非常時報國模範運轉士短期急速養成
朝鮮第一自動車學院
晝夜ノ別ナク年中無休猛練習 (入學案內書進呈)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四七
學生大募集

最新強壯劑
フェロトン

ニキビ (여드름)

にきびとり



美顔水

여드름・부름에반드시이藥

アブラ顔 (기름찐얼골) 의化粧下에最適！

▲여드름부름에 非常히잘드르므로 大評判의藥입니다 여드름과 부름으로困難하시는분에 歡喜의的！ 꼭勸하고시픈 藥입니다

蚤・蚊・南京虫等의 毒虫으로가려운때

여러한때도 이상하리만콤잘드르므로 特히 어린애들이잇는 家庭等에는유달리珍重히쓰고잇습니다

▲定價 一瓶四十錢、六十錢、一圓二十錢 全國藥店소에잇

化粧用 美顔水

金鶴香油

純植物性

拔毛・折毛・를防止하는養毛整髮料

이것은당신의머리에潑潮한生氣를주고旺盛한成長力을북도두아執拗하히트러지는머리를고치고、알맞게부드럽고도두룩하게해서숫한美髮의魅力을永久히保全케하는純良植物性의養毛整髮料입니다

香氣馥郁、光澤、氣品高尙、갑아셔잘빠집니다

本舖 株式會社野村商店

名粧藥內

健康美를 찾는분은 이化粧品으로써！

品質도조코 잘도팔리고 評判도조타

活性藥用 ニード(니도)가루洗粉

본바탕에서부터 살결을어여뿌고 潤澤하게하는

여드름살거침、弛緩、부름을解消하고 살결을 整調하며 潤滑하게한다！ 漂白作用으로서 색갈이히고 榮養을주며 主要原料의 特異性으로 化粧을 잘되여서 틀림 업시당신의마음에 꼭 들게됩니다

布袋入ニード洗粉

本舖 田中善株式會社

銃後婦人にこそほしい！ 健康化粧法

홀몸으로… 皮膚가健康케이뿌게되다

1 クラブ乳液 먼저 호로몬化粧水의クラブ乳液을脫脂綿에적서서얼골과목을훔처냅니다汚垢와脂垢가깨끗이닥가지고과함께毛孔을引緊지킵니다

2 クラブ美身クリーム 다음에クラブ美身크림(호르몬配合)을얼골에잘펴바릅니다白粉을잘받게하고化粧이오래감과함께살결에豐富한榮養을주어서젊고이뻐게합니다

3 クラブはき白粉 그우에 クラブ가루白粉(호르몬配合・十二色)을파후로가벼히눌르는듯바릅니다最後에クラブ빰연지눈섭먹입술연지로모양을냅니다

학교다니는딸의 뒤치다꺼리 座談會 ②

"길러논공으로본대도 저이혼인문제에는 참섭할권리잇지요"

구경을갈때는 혼자보내지말자

李 요새흔한 활동사진이나 연극 구경가는건 어떠케 생각하십니까?

洪 (잠깐놀라며)나는 도모지 맛당하게생각지안치만 우리작은 딸년은 활동사진 구경이 그리조흔가봅니다그려.

朴 우리한달에 한번식은 부민관에서하는 정도의것은 구경시킵니다. 할수잇스면 부형되는이도 그만한 교양은잇서서 조흔사진이나 연극이면 자녀들을 거느리고 구경가는것이 조흘것입니다.

趙 저희들끼리 가니까 나는별로 모르지요.

金 나도 자식을 꽤 엄하게 기르노라고하지만 활동사진이나 연극에 조흔것이면 가서보는 것조흔데 할수잇스면 아까도 어느분이 말슴하섯지만 어른들이 동무하야함께갓스면 조켓서요.

朴 혼자내기는것은 아무래도 재미업서요. 혼자내여노흘 지경이면 차라리 안보내는게 조흡니다.

趙 우리애들도 혼자는 안가고 저이형제가 가니까요.

저금통장해주니까 용돈적게씁디다

李 여학생들 용돈은 얼마식이나 주십니까.

朴 우리는 학교다니는 애들이 몃이나잇는데 저이아프로 다 각각 저금통해노코 저금통장도 저희들끼리가면 어쩌든 통장에 돈을 찻는게 앗까워서 액겨씁니다. 그러니까 밤낫부모에게서 한푼식 타가는것보다 오히려 경제가됩디다.

金 참그것도 조흔방침입니다. 그러나 저축하고사는 사람이 몃되야지요 그저 전차비나대고 그밧게는 십전 이십전해서 저이가 꼭쓸일에나 타갑지요.

洪 그저살림사리에 다닐만큼입니다. 넉넉하게 사는사람보다 겨우지내는사람이 더만흐니 어느하가에 아이들 용돈까지넉넉히줄수가 잇서요. 도로히넉넉하드래도 쓸데업시 돈만히줄 필요는 업는것이어요.

李 여학생들의 학교이외에 독서는 어떠케합니까 혹 책을사보라고 돈을줄수는일도 잇습니까?

朴 네, 우리는 다달이 학과외에 저희들의게 적당한 잡지를사서주어요.

洪 나는 부끄러운말이나 그런것까지 챙견할 아무힘도업습니다. 저희들이 무슨책을 읽는지 알기나합니까.

趙 우리아이는 나보다 제형하고 의론해서 모든일을 하지요.

李 학교에서 가저오라는 돈도 내야 무엇알아야지 때만습지요?

朴 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은 십전이라도 조타고 해도 아이들은 삼십전이나 사십전은 내고시퍼하니까요.

趙 가저오라는게 하도만흐니까 아조 정신을 차릴수가 업지요.

겁나는연애문제

李 여학생들이 연애를 하는때는 어머니되시는분들은 어떠케 하시겟습니까.

(갑작히긴장 얼굴빛들을 변하고 손갓만 배비작배비작)

金 연애는 반대합니다. 자식들이 연애를하고보면 가정의 품위가 업서지고 또 연애를해서 죽네사네하고 시집가고 장가가 저희들도 그러케 잘살지는 못합디다. 그러니까 나는 어째든 연애는 반대입니다. 부모가 일껏기른 공으로라도 저의혼인에 참섭할권리가 잇지안슴니까. 연애해서 어쩌구하다니 대반대입니다.

李 그러나 어머니 되시는분이 아모리 반대하시드라도 그런일이란 맘대로만도 안되는일이니 정그러케된다면 그때 어찌하겟습니까.

金 그야 정그러케된다면 할수업고 도상대편을 잘살펴서 조토록 처리해야하는게지만 어쨋든 저희끼리 연애는 무척 위험해서 우리어미되는 사람은누구나바라지안는것입니다.

洪 나도 반대입니다. 부모네가 어련이 잘해줄라고…… 저히끼리 그리겟서요.

趙 그러치요 우리부모된 사람의생각은 다맛찬가지인데 그래도 저히가 그러케되면 그도할수업는일입니다.

朴 우리는 아직아이들이 어려서그런지 그런염려를 느껴보지도안햇고 머 별로 생각지도 못햇습니다.

李 잘 알어들엇습니다. 그런데 따님들이 장성해서 혼인할새에 이르면 어머니에게 대한태도가 어떠습니까. 점점 섬기여집니까. 그러치안흐면 더미면해집니까.

金 저히가 나히도들고 학교공부도 놉하가면 갈사록 어미말을 잘드를뿐 아니라 모든것을 다리해하고잇서요.

趙 딸자식이 잘된건 아들보다도 더미듬직하고의지가됩니다.

洪 그럿요(희색이만면)

―계속―

出席者

朴贊喜 金氏 金雷霆 趙德順 洪順嬅

本社측으로 編輯局長 咸尚勳 學藝部長 李源朝 同 李善熙

사진은오른쪽으로부터 李善熙、洪順嬅、趙德順、金雷霆、金氏、朴贊喜、咸尙勳、李源朝諸氏

長篇小說

愚氓 【140】

朴泰遠 作 洪祐伯 畵

最後의犯罪(2)

가을밤도 어느덧에 깁허 반찬가게에서 요란스러 떨리더라디오도「안녕히 주무시요」――인사를 마치고 잠잠한때 전차길에서 한참 들어온 이골목목안에 어둠을 타서 한 사나이가 배회한다.

코올텐바지에 코올텐잠바, 맨발에 힌고무신을 신은 사나이― 분명히 어데서 본듯십다 생각하고 자세히 살피면 마침 구름속을 빼저나온 교교한 달빛에 희안히 비치는 그의얼굴이 절반 너머나 섞겨잇는 머리하며 한쪽다리가 부러저서 굵은실겁실로 째여맨 대모테 안경 하며……그것은 어느틈엔가 장안거리에서 종적을 감추어 그소식을 구경꾼이도 모르고잇던「거리의 철학자」가 분명하엿다.

일은 봄에 보앗슬때 비겨서 그의 안색은 좀더 초최하고 행색은 좀더 초솔하다. 그러나 그 몽롱한 표정, 그 근심업는 걸음거리……그것들은 전이나 다름업시 또 그대로 불을 부치지 안흔 담배꽁초를 물부리에 끼여 입에 문 꼴이며, 역시십오년전에 한번 일허버린 정신은 용이하게 도루 차질것이업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분명히 마음에서 찻는 집이 잇는 듯시펏다. 전이나 한가지로 지나는 여자를 눈여겨 보고

「아니다 틀리는 사람이다」

또는 생각난듯이 한걸음에 걸음을 멈추고

「가난한것은 죄악이다」

이미 그러한 말을 중얼거리는 일 업시 느린 걸음거리로 면접을 가다가 문득 생각난듯이 뉘집 문깐에 우두머니 서서 호욱 기둥에 걸린 문패도 살피고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에도 귀를 기우리고……그러다가 가벼히 고개를 뒤흔들고 그 압흘 떠나 서너 집을 더 걸러서 다시 가튼일을 되풀이 하고 되푸리 하고――그러는 모양이 정녕코 이동리 어느집에 무엇을 스스로 기약하는것이 잇는듯십다.

마침내 그는 한곳에 이르러 이번에는 가장 자신을 가진듯싶게 걸음을 떡 멈추엇다.

이미 대문을 다더 걸은듯지픈 그 안으로서는 가만한 인기척도 한줄의 불빛도 새여나오지는 안헛스나 가엽는 사나이는 대문아페 바싹 다가서서 한참을 꿈쩍안 끼러 그 어둠속에서도 기둥에 달린 문패에『조원순(趙元淳)』석자가 분명히 적히어 잇슴을 알어내엿다.

(여기다 여기다……)

거리의 철학자는 가만히 중얼거리고 꼭 다친 문틈으로 엿마등안이가 안을 엿보려 노력한다.

그러나 그안으로서는 여전히 한줄의 불빛도 새여나오지 안헛다.

그는 이번에는 눈대신 귀를 부치고 안을 엿드르려 노력하엿다.

그러나 그안으로서는 아모런 한 소리도 들려오지는 안는다.

그래도 거리의 철학자는 젼사리 단념하지 안코, 대문 아페 느리게 오고 또 갓다. 그리다가는 생각난듯이 다시 대문에다 착 몸을 부치고 안을 엿보고 엿듯고 그리다가 미심하면 두번째 세번째 어둠속에 문패를 살피고

(역시 이집이다 틀림 업시 이집이다……)

몃번인가 혼자 중얼거리고,

(허지만 모두 자나보다. 연동이 함께 모두 잠이 들어버렷나보다……)

멀거니 서서 얼빠진 얼굴로 잇속에 혼자 중얼거려보곤 한다.

그러나 이집 주인은 결코, 잠을 자고잇지는 안헛다. 대문여페 부러잇는 들창들으로 선처집 표씨는 어둠속에 쉬사이업시 몸을 떨며, 겁집어 먹은 눈으로 그러한 거리의 철학자를 감시하고 잇섯다.

웬 수상한 사나이가 대문아플 오락가락 하고 잇다는 말을 할멈에게서 들은것은 바루 그저께밤이다.

그냥 웬 사나이라고만 듯고도 눈이 둥그래진 표씨는 그 사나이의 모습을 물어보고 그만 가슴이 덜컥 나려 안젓다.

가을부인복 스타일

허식을피하고실용적인것 한벌가지고세가지로쓴다

이가을의 양장은 특히 천체적으로보아 크게달변화는 업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생명이 짧은그단의 데사인이나 이상야릇한장식은 업서지고 어디까지나내용에 충실한 데사인이나 실용적장식을 주로하게되엿습니다

모양=스카ー트는 길이가 짧은데 이것은 옷감의절약파활동하는데 경쾌한것을주로한것이고 동시에 입어서 편한것을 고조햇습니다

가슴은 몸이 적은분이 입기예알맛게『하이넥』이든지좁고 V형이만코 쓸데업는끼리를 부친것은 비교적적습니다

스카ー트의 아래두리는 약간넓게버려진 폭이고 주름은 만치안습니다

그리고 이스카ー트에도 쓸데업는 치장과 장식은 별로업고 되도록 실생활과의 합치를 보게된것입니다

양복감=아무래도 혼방직것이중심이겟스나 삼합의스파를 석거짠것도 순모보다 못지안케 대용품이될으로써 적합거업고 더구나 앙고라토끼털을 석근것은 보드랍고 가벼워 종래의 순모보다 오히려나흔것갓습니다.

또한편 털실이 부족한대신비단을 부인들 양복감에 적당하도록 두껍게 짜는것도 방금연구중이다 또어느정도까지 인조견을 석거짠 독거운감도 모직물 대용으로할수잇스니 별로문제업습니다.

그리고 색은 그린ー녹초록색이 만히 씨우는데가을겨울의 스카ー트나 원쓰오의、빗갈은 대개 검정이곤색、고동색등의 기픈비치고 여기에 간단히 밝을수엿는 부속품은 여러가지화려한색을 쓰는경향이 잇습니다。 그리고 어째든 색을배합하는데는 산뜻하게하는것보다 좀어둡고 현대적인것이 유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고안으로 감의절약도 될겸시대의요구에따라 코ー트 또레쓰、스ー쓰는레쓰등이 생겻습니다。

코ー트는레쓰는 그대로일것가트면『원피쓰』로 입을거지요 스카ー트와 스에타를입은 우에입으면 오ー바가되는 편리한 점도잇고또 스ー쓰는레쓰는 스ー쓰의조흔점을 살려서『원피쓰』로써 감의 절약을 생각해서 만든것인데우에『부라우쓰』만 몃개로 박귀입으면 여러가지로 변화를 부칠수가 잇서서 조흡니다。

(사진은신고안의 경제복)

몸약한 애들은

일광욕시작은 가을부터가조와요

함부로해서는되려해롭니다 시작하는법은이러케

특별한 병은업스나 어딘지모르게 약해서 걸핏하면 감기가 잘들고 소위선병질의 체질을가진아히들의 체질을 개선하는데는 일광욕이 조흔것은 누구나 아는바입니다。

그런데 여름엔 너무볏이 뜨겁고해서 도로혀 피부에 파도한자극을주고 조치못한 영향을 끼치기쉬우나 여름이지나고겨울지도안흔 가을철에 들어서는이일광욕이 대단히 잘맛습니다。 날세도거륵해 맑고하니 어머니되시는분들은 잠깐일을 그만두고귀여운자녀를 위해서 이일광욕을 시켜주시세요。

그런데 허약한 아히들의 일광욕에는 어른들이 충분히감독해주어서 너무지나치게 말어야합니다。 다음에 리상적 일광욕방법을 말슴해드리겟습니다。

장소――일광이 잘들어오고 바람이 직접들에 오지안흔곳을택할것입니다。 유리창넘어나 커튼넘어로 들어오는 햇볏은 슬데업습니다。 시간은 오전십일시부터 오후두시까지가 제일적당합니다。 그리고 다음과가티 날마다 조금씩해야 조슴니다。

○

▼제일일 발만오분간

▼제이일 발을오분간 쪼이고 무릎을 오분、합해서 십분간

▼제삼일 발오분간、무릎까지 합해서 또오분간 그담엔 넙적다리까지 합게십오분간

▼제사일 발오분、무릎까지오분、넙적다리까지 또오분、배까지 또오분、합게 이십분간

▼제오일 발오분、무릎까지오분 배까지또오분 합게이십분간

▼제오일 발오분、무릎까지오분、넙적다리까지오분、배까지오분、가슴까지오분 합게이십오분간

▼제육일 발오분、무릎까지오분、넙적다리까지오분、배까지오분、가슴까지오분、합게삼십분간

▼제칠일 가슴까지의 전신욕의 시간을 십오분연장해서 합게삼십오분간

▼제팔일 이십분간연장 합게 사십분

▼제구일 사십오분

▼제십일은 오십분쯤

어떠케 약십오일동안 발끄트부터 차츰차츰올려서 나종엔 온몸을 쪼이면 대단히 조흔결과를 엇습니다。

지차리우

할머니이름

손자「할머니이름은 뭐유 마나님이라는 것이 할머니이름이유」

할머니「아니다 내이름은 금순이란다」

「에해 어쩨집에이름하구 꼭가태。할머니한테도 예뿐이름을짓지나」

(그린사람 렴정화)

漫筆 · 漫學 · 科學

노벨賞과 獨逸 (五)

安東赫

「다이나마이트」의 發明者로 巨萬의 富를 蓄積한 化學王「노벨」이 一八九六年十二月 그 臨終時에 記念으로 남긴 世界最大의 賞牌는 一九〇一年以來 物理學 化學 生理學及醫學等의 自然科學과 文藝及平和의 文化的諸領域에 最高의 榮譽로서 長久한 期待의 對象이 되고잇슴은 周知하는바이다。

그런데 지난 一月三十日 獨逸「히틀러」總統은 國會에서 今後 獨逸人民의「노벨」賞을 밧는것을 一切禁止한다는 意味의 重大宣言을 하엿다。此에 對하야「스톡홀름」의「노벨」委員會는 獨逸은 此에 依하야 何等의 所得이 업을뿐아니라 도리어 獨逸을 害하는것이다。云云의 遺憾의 意를 表하엿다

◇

受賞 一九三七年度 受賞者가 發表되엿는데 그 受賞者 人物의 氏名及國籍은 如左하다。

○物理學賞 對賞
英國 王立大 톰손
米國 벨電話實驗所 데이비슨

○化學賞 對賞
英國 빠밍감大學敎授 하워스
瑞西 주리히大學敎授 카ー러

○生理學及醫學賞 全賞
匈國 제게드大學 교르기ー

○文學賞 全賞
佛國 로제·마르땡·듀·가르

○平和賞 全賞
英國 上院議員 세실卿

此表를 보면 獨逸人은 一人도 업다。「나치스」獨逸이「노벨」賞授賞을 拒否한 原因은 先年 獨逸政府에 [illegible] 反나치스의 猛將 오시에츠키가 平和賞을 授賞한 때문이다。獨逸政府는 此에 對하야 抗議하엿는데도 不拘하고 授賞을 實行하야 드되여 禁止宣言에 至한것이다。

◇

一九〇一年賞牌 制定以來 受賞人員百六十人 十個國이 賞하거되엿다 某好事家의 統計를 紹介하면 如左하다。(〇五는 受賞者一人에 該當)

獨逸	三七
英吉利	二三、五
佛蘭西	二〇、五
米國	一八
瑞典	一〇、五
瑞西	七
和蘭	六
丁抹	五、五
墺太利	五、五
白耳義	四、五
[illegible]	四、五
伊太利	四、五
印度	二
[illegible]	二
露西亞	二
西班牙	二
加奈多	一
愛蘭	一
[illegible]	一
匈牙利	一
[illegible]	一

即 獨逸人이 [illegible] 占有하엿스며 特히 自然科學方面의 獨逸人의 受賞者數는 斷然壓倒的多數이다。

◇

그러케터에「노벨」賞으로부터 獨逸을 除外하고는 其賞自體의 世界的興味를 喪失하기쉬웁다。이러한點에 對하야도 벌서부터 詳知하고 잇는터인「히틀러」總統의 授下한聲明은「노벨」에 對한 壯大한 文化宣戰이며 果然如何한 影響을 與할는지 興味잇는問題이다。

[illegible]잇는 賞牌와 平和賞과는 元來가 水火同様이오 또 [illegible] 어세한것이다。今番의 平和賞이 獨逸의 國際聯盟에 對한 世界唯一의 [illegible]인「세실」卿에게 授與된것도 若干의 意味가 不無하다。

이리하야 獨逸에는 世界文化의 天使로 活躍하던「노벨」賞도 世界의 [illegible] 國家主義와 國際主義의 紛爭에 끼여서 [illegible] 難航을 繼續할수밧게 업슬것이다。

學藝

戀愛와 結婚과 文學
—作家的最高感情의問題—
⑤ 安懷南

一言而蔽之하면 그것은 그때가 온 까닭이라고 하겟다。戀愛가 오고 結婚이 오고 인저 文學의 時代가 온 때문이라고 하겟다。그것은

情熱의 變化가 아니라 延長이다。아무 矛盾과 아무 破綻이 업는 연고이다。오늘날까지 지나는 戀愛와 結婚을 文學우에다 두엇섯스나 지금에는 文學도 戀愛와 結婚의 미테다 두고는 시프지 안타。그것을 至上으로하고 最高로하야 차호고 시프다。그것을 爲하야 섬기고십다。그것이 아니라 情熱로 한것처럼 戀愛와 結婚을 意識으로 한 文學에서도 그러해야겟다는것이다。그것은 어떠한 目的을 위하야 統制를 드는 意識이 아니라 그냥 始初로 붓대를 드는 情熱이다。우리가 文學을 위하야 차호면 文學은 우리를 爲하야 鬪爭하는것이다。

人生과 社會에 對하야 어떠한 한개 目的意識을 갓는것은 우리 作家가 가지는것이 아니라 정말은 文學自體가 갓는것이다。그러키때문에 이러한 文學에 對하야 우리는 最高至上의 情熱을 가지면 고만이다。그러면

文學이 人生을 위하야 社會를 위하야 意識하며 行動하는것이다。

文學은 다른것이 아니라 훌륭한 한목의 人格이다。그것과 더부러 足히 戀愛하고 結婚할만하다。아니 지금이 꼭 그러케 해야만할 時代가 아닌가한다。戀愛나 結婚에잇서서도 그것이 第一壓迫을 밧고 가장 危機에 떠러지라할때 우리의 情熱을 불은것이다。文學에잇서서 지금이 正히 그러한때이다。

藝術至上主義는 個人主義이요 非社會的이라고 하는것은 녯날말이다。그러치아니다。藝術을 爲한 藝術이라는것이 結局 人生을 爲한 藝術이라는것을 우에서 보앗다。그 最高情熱의 藝術을 爲한 藝術은 人生을 爲하야 어데까지든지 最高情熱의 藝術일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至高至純하기때문이다。良心的이기까닭이다。情熱인 연고이다。이러한 人格의 文學이 虛僞假面일 理가 업다。正義요 眞理요 眞實하다。그것은 스스로 가장 아름다운것 어며

淸淨할것이며 모든 그 못된것에 對하야 나면서부터 鬪爭的이기도 할것이다。그것은 제의 情熱로써 意識的인 이데오로기를 正當하게 招來하기도할것이다。

勿論 누구나 아름다운것때문에 戀愛하지마는 戀愛하니까 더욱 아름다운것이다。文學하니까 結婚하지마는 結婚하면 더욱 高崇한것이다。올키 까닭에 藝術至上主義이기도 하지만 藝術至上主義이기 때문에 더욱 올키도할것이다。그것은 그냥 껍데기뿐인 觀念이 아니라 한개 生活이요 한목의 人格이다。

그것은 思惟하며 行動하며 鬪爭할것이다。問題를 품고 아름다운것을 取擇하야 가지며 미운것을 排擊하여버릴것이다。모든것은 나중課題이다。그뒤에오는것이다。爲先 作家들에게 무엇보다도 先決인것은 이 最高感情의 問題라고 생각한다。戀愛와 結婚만이 生活이 아니요

宗教나 政治만이 生活이 아니다。藝術도 生活이다。藝術至上主義도 生活이다。

껍데기의 人生主義와 빈껍질의 藝術主義를 우리는 물리친다。그것이 비로소 生活과 藝術에까지 올라오는것은 最高至上의 情熱이 함께하는데에서부터 시작한다。우리는 어쨋지안케 人生이나 社會를 爲하야 努力하는것이라고 自慢할것이 아니다 첫재로 文學을 위해서 살고 努力하는것이다。그러면 우리를 대신하야 文學 그것이 우리의 하고시퍼하는것을 위하야 努力할것이라고 밋는다。

藝術上의 모든問題 무슨主義이니 무슨派니 무슨 精神이니 하는것은 나중課題이다 그것은 作家個人이 혼자서만 가질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 훌륭한것이면 文學全體가 가질것이다 爲先 우리가 解決하고 反省할것은 한개 高度의 感情問題이다 戀愛와 結婚에서 가티 그러케 맛등을 爲하야 人生이 情熱的이면 文學도 人生을 爲하야 그만치 情熱的일것이다。(完)

북레뷰ー
朴勝極隨筆集 "多餘集"
林和

「多餘集」은 著者 朴勝極氏의 不惑 最近 三四年來의 感想과 遊行에서 어든 感想의 記錄으로 大部分은 이미 여러곳에 發表되엇든것이다 나는 그가운데 몃篇은 이미 읽은 記憶이 잇는것이나 一言으로 그 글들에 對하야 무엇이라 말하기는 어려웁다。

그러나 近四十篇에 達하는 文章들은 著者와 더부러 最近三〇年代前後에 靑年期를 行爲에의 意欲으로 燃燒시키든 同時代人에 對하야 實로 [illegible] 아니할수업다 나는 이冊을 읽어가면서 紙面을 通하야 傳해오는 時代의 雰圍氣에 이 著者와 書冊과 文章에 對한 格別의 親近을 일흘가 두려웟다 多餘集! 著者의 말에 依하면 이冊은 年前의 죽은「秋史」의 詩句에서 따온것이라한다 그래서 著者는 스스로 이冊을 生命잇는 生活에서 울어난것이 아니라 半너머 죽은 너무나 閑暇로운 남어지의 產物이라하나 우리에게 잇서 이餘暇란 瞬間瞬間이 實로 두려운 生의 生命이 消耗되는 瞬間이엿다。

「孤獨」이라든가「生과死」라든가「悲哀」이라든가 이러한것은 우리 年配의 靑年이 생각할 主題가 아니다。좀더 늙어서 생각할것이다。그러나 三十代의 靑年이 이런것을 이야기 한다는데 오늘날이란 時代의 매운 性格이 드러나잇다。

나는 이冊의 著者가 이러한 實로 커다란「테ー마」를 생각하면서 間間히 常識과 咏嘆으로 處理하는것을 그리 즐기지는 안는다 그러한 意味에서 차라리「파세잘해드나?」의 깨끗하고 懇切한 感傷을 사랑한다。이쇼엔 예뎁 어늬「게르만」人이 제아들의 頭上에다 林檎을 노코 [illegible] 와 갓다 이冊은 左右間 著者가 藝術家로서 또 社會人으로서 來日을 準備하는 眞實한 記錄일뿐더러 만흔사람이 이時代를 사라가는데 가르침과 暗示의 慰藉를 勸한다。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金星書院 振替京城三二〇七九番 定價一圓

新刊紹介

▲保健朝鮮 九月號 發行所 京城光化門郵便局私書函十八號 保健朝鮮社 振替京城二九四六六番 定價五錢

▲朝鮮監理會報 第八十五號 發行所 京城府冷泉町三十一番地 基督敎朝鮮監理會總理院 振替京城一八三七三 定價五錢

▲十字架 十月號 發行所 京城府新堂町三四七의一八四 十字架社 振替京城一七五〇九番 定價六錢

學藝小抄

「芽」社更張

同人誌이든"芽"社는 今般 事件에 因하야 題號를"[illegible]"로 고치고 綜合藝術雜誌로써 새로운出發을 하게되엿는데 特히 音樂部안에 半衆樂研究所를 두고 咸興白波社도 한事務所안에 두기로되엿는데 그事務所는 京城黃金町一丁目三二에 두엇다

漢詩募集

題 新凉
押 人
九月末日
(薄謝進呈)

新人短篇 夜寒記 (十七)
許俊 作 · 崔根培 畫

재 맛기가 빼지지아니한 무엇이지 차돌한것이 자욱하니 남어잇는 느진해가 한발이나 남어서 남은 온길이 집을 내려왓는데 나가는차는 벌서 한시간전에 나가고 또 차시간이되려면 한시간반은 더 잇서야할 모양이엿다 그는 어쨋든 어느차에라도 갈생각으로 양복에리를 추켜올리 오스스하는몸을 가다듬으면서 대합실 한모퉁이에 걸처안젓다 아마 먼데서온 어되로가는사람들인지는 알수업스나 좀은날들의 한때는 아주퍼여보지도 아니한 작년에 침만해논채로 내다안지 노찬 다루마난로를 차고안저서 묵묵히 무슨궁리를하고잇는것을보며 남도 그럴듯하엿드면 보겁이를 못맛날줄 아렷드면 돌오드러가서 편지를내다 부치고가는것을 하는 생각까지하며 지리한시간을 보내고잇섯다

그때 갑짜기 뒤에서 문여는 소리가 왈카다 나는니 모두 제일 제생각들에 몰두하여잇는 거기엿것는사람들의눈이 번쩍 또이도록

「아 남상」

하고 사양이서 소리를치는데 도떠오는사람은 보기의명 홍검이엿다

남은 그소리가 정말 제일홈을 부르는것인지몰라 그사람어 웃쇄웃쇄 자기를보고 걸어드러와 자기의옷소매를 잡을때까지 멍하니 그사람의얼굴만보고잇섯다

「웬일이십니까」

「웬일이아니라 할 잘왓나 글쎄 나와다는소리는 못고나오면서도 또 어떠케 못맛나지나안나허구 오면서도 초조하엿네 이자 자네집엘갓드니 온정자네집에도 들어갓다나오는길이야 삼천간다고 나왓다구 그래오늘 또 못보는줄알고얘도래왓네 헌데 오다가 온정이년이 제에비차즈러나왓다 도떠가는걸맛내 그년한테서 남상이 그년집에 들린걸알엇지 그래 지금 거기서 내려오는길이야 내 무슨일로 남상이다 그집에갓섯는지알어 허허허」

하며 우슴을 치는것인데 그는보지는 아니햇서도 이홍검이란 사람의 눈이 그러면서도 연방 급실급실하는것이 보이는것가테다

「허나 자 그이야긴 나중에하고 우리 나갑시다」

하며 그는 남의저고리소매를 잡어다리는 것이다

남은 자기를맛날 이사람의 무슨일이지는 알수업섯스나 이조그마한 바닥에서 자기의일 자기의존재를 크게들어내이는것이 실흔생각만으로 이사람을어바그로 나가기로하엿다

「여기 나와다할적에 벌서 날자네가 그년서내집에갓슴을알엇드란그말이야 자네그령부인한테서 삼천갓단 말만듯고 벌서 도라서오기전말할려이야 히히히」

먼저 대합실로가섬을 내드되며 홍검이는 영부인이라는 악센트를 이상히도 놉혀지기며 그의엽구리를 쿡찌르는것이다

「자 우리 저기가서 저녁이나 가치 먹자구 어던어듸야 저기지 앗다 그리사양할건무엇잇서 자자」

제가 못고 제가대답하고 무슨일인지 다 된것갓햇다

× ×

자기가 처음 이곳을 떠나든때만하여도 이곳은 그러하지아니하엿고 또 그런치못한곳이엿다

다른기차선로의 여남은곳이 다 그러한듯이 이곳도 조그마한정거장을끼고 장터에 지나지 안헛섯다 장도 닷세에 한번 서는 여늬장이오 거기 나는것과 모히는이들도 항상 이어방촌사람들이엿다

이곳에 지금은 무슨장사가업스라한듯이 다 각기 빼정한전을가지고 나섯지만 예전 장화상이니 포목상 사기전 무슨생선가게것까지 모두 장돌뱅이의 손으로 거래가 되엇슴때에는 본바닥에는 떡이니 죽이니 엿이니하는 낫결에 잠간 요기하고나갈 음식박게는 제자리를갓고나와안즌 물화라고는하나도업섯다

그러지도벌서십사오년전이되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부치개나 과집가튼 올빗볼것이 나기 시작하다가 언제든에 내지인가게가 하나생기고 려관이나고 요리집가튼것까지 생기는것을 자기도 보지안흔것은 아니엿다 그리고 그것이 다 그때 차차 알리워지기시작한 온정의 숨은빗치 엇지안흐리라고 짐작도하엿섯다

허지만 그빗치 그러케 빠른 거름으로 오리라고는 생각지못하엿섯든것이다 지금은 온정인곳에서 연마전내려와 옹까지 고주 빼친 오리나되는길이 중간고 채마가 들면 뜻집 어남는때로서도자기압흐로 다만아를어 아니뵈나는 무엇이지만 그래도 상당한넘어들 치러내려오면서 어진은 그래도 온정을 부등하대 산들 봄니리는 광뿌를이업서서는아니되든 우리한 주막이엿섯다

智異山探險記

智異山行第六日……(三)
智異山에의告別
⑮ 李殷相

이實相寺가 新羅時代에잇서서는 洪陟國師의 開祖로하고 寶月九山中의 重要한 一隊가 되엇섯고 高麗에 잇서서는 台宗의 根據地가 되엇든만큼 三國時代以來로 朝鮮佛敎史上에 큰 功績을 끼친 곳으로 볼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절에 公認된 國寶的遺物이 적지 그數爻로도 남에게 지지안는다。

洪陟國師의 [illegible]塔과 塔碑며 秀澈國師의 楞伽寶月塔과 塔碑는 勿論이오 그外에도 著名한者는 石燈과 浮圖와 藥師如來坐像과 또 百丈庵의 石燈 三層石塔等이라할것이오 그中에도 壯觀인者는 實相寺三層石塔이다。

南北에 一系의 三層石塔이 잇는데 兩塔의 石塔이 十二米의 距離에 서로 對하여잇다。

南北塔이 總高八米二十糎의 가장 키를 가젓고 그樣式形狀도 大同한데 다가리 第三層의 金石우에 方形의 蓋를 엇고 露盤, 覆鉢, 仰花, 相輪, 水煙이 잇서 寶蓋, 龍車로써 그것을 뀌어세운것이 塔婆의 모양을 奇妙하게할뿐으로도 [illegible]

智異山 그리워 왓더니라
그리워 왓건마는
峰峰이 골골이 보앗노라
다 밟아 보앗건만
또다시 그립고모르고
그냥둘어 가노라。

여기서 몸長牲아
네가 차라리 부럽고나
듯도보도 말도업시
智異山미테 혼홀로서서
빙그레 웃고사다면
그幸福이 얼마이랴。

여기다 두고갈까
다시야 어늬제 오리라고
버리고 그냥갈까
그리워 어일꺼나
智異山 入百里라건만
업고안고 가노라。

내를건너 大路로나서 다시 自動車에 몸을실고 引月로 雲峰으로 古蹟을 바람가리지나 南原으로 드러오자 오늘해도 [illegible] 合掌하고 누엇어 [illegible]을 볼는다。(完)

畢稿數言

저 休靜禪師가 뒷날에 北韓에 올라 頭流山을 생각하며 노래하되

北地新爲客
南天舊主人
十年山獨在
千里月相親

이라하엿다。오랫동안 [illegible]한 讀者아 擬考한 이記行을 저어 是正을 맛고 어제 [illegible]을 하게되기하매 글을 떠나서 거둬한 그自然 거기서 받는 感激과 禮讚의 모든 感謝하고도 未盡한 하며 그感銘이 다시금 그립고 느껴움을 기리깨닷는다。

그와아울러 往返沿路에서 聽聞을 가치하던 山水友들과 迎送의 勞를 아끼지아니한 山下列邑의 紳士들과 [illegible] 여러 知友들의 健康과 幸福을 빌며 다시 讀者諸位께 文中의 誤謬가 後日 單冊으로 公刊하게되는때에 是正될것을 [illegible] 付言하야 두는바이다。(完)

消化促進
榮養增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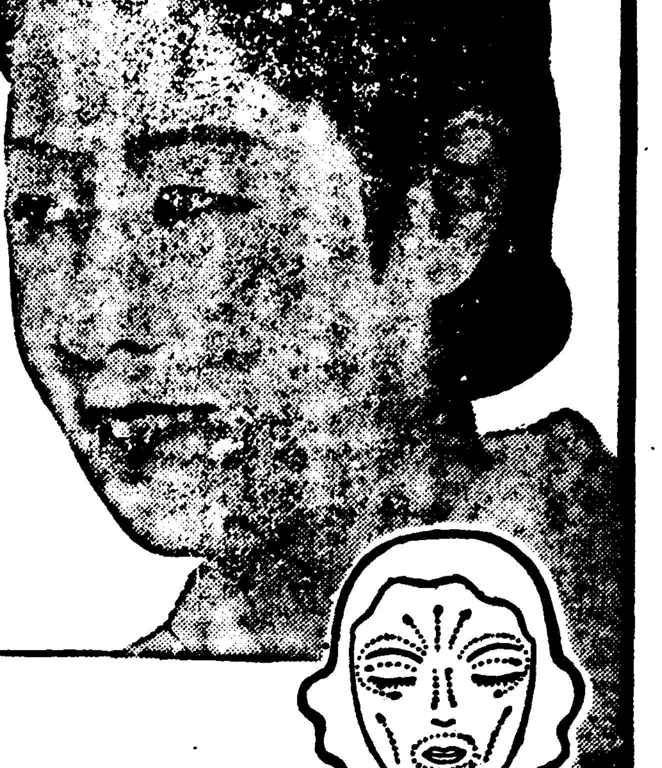
三共 SANKYO

タカヂアスターゼ

다까지아스타ー제 의 澱分消化力은 無比하다는말을듯습니다 우리들의 食餌의 大部分을 占하는것이 澱分이며 이것을 가지고도 本品이 消化藥으로 제 無比하다는 所以가 明白합니다 그리고 다까지아스타ー제 는 多種多様의 榮養物을 消化하며 그 吸收를 促進하는 多角的作用을 가지고잇습니다 그리고 從來의 消化藥과 달러서 그 效力은 恒常一定하야 永不變 世界各國의 醫家에게 愛用支持를 맛고잇습니다

說明書進呈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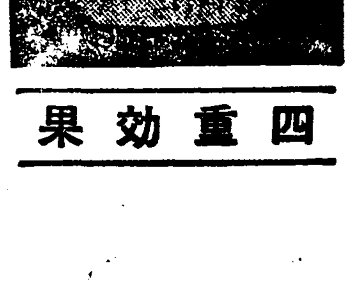
強力な榮養素が 小皺·タルミを解消し 柔やかな若肌を創る
(强力한 榮養素가 주름살 느러지는것을 解消하며 부드러운살결을 맨든다)

가을은 皮脂의 分泌가 旺盛하며 그우에 强烈한 紫外線의 刺戟을 바더서 皮膚機能이 衰退하며 살이 疲勞합니다 또 여름에 벼테타고 海水로 살결이 거치러젓스므로 純良한 榮養素를 補給하지안흐면 잔주름 파살이 느러저서 살결이 보기숭하게 거치러집니다

簡單한 榮養素의 分別하는法!

純良 한 ウテナコールド는 乳化의 完全한 純脂肪性이므로 번지기를 잘하고 有效脂肪性의 强力한 榮養을 皮膚深部에 滲透시켜 皮膚의 新陳代謝를 調節하며 살의 疲勞를 回復하고 잔주름 느러지는 것을 解消하여 부드러운살결을 맨듭니다。

粗惡 한 コールド는 表面이 不純한 白色으로 풀과 가티 부푸러잇스므로 살에 발러도 滲透力이 업고 단지 皮膚表面을 더풀뿐이오 美肌効果가 적고 도리혀 氣孔과 毛孔을 密塞하여 살을 거칠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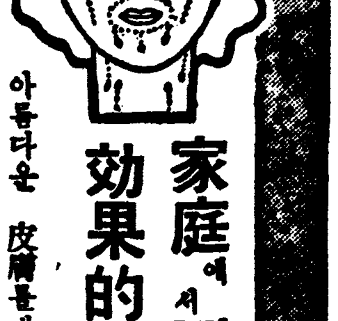


四重効果

ウテナコールド는 絶對他品의 追隨를 不許하는 훌륭한 左와가튼 四重効果가 잇습니다
1、淸掃에 訪하야 거치른이에게 理想的입니다
2、榮養에 맛사ー지에 가장 效果的입니다
3、美容에 살결이 고운 [illegible]을 맨듭니다
4、濃化粧下化粧을 아름답고 오래가게합니다

[illegible]·六〇錢、一圓二十錢

家庭에서 될수잇는 效果的인 美容法



아름다운 皮膚를 맨드는데는 就寢前에 반드시 맛사ー지를 해주십쇼 먼저 ウテナクレンジンク로 皮膚를 淸掃하고 ウテナコールド를 고로게 바른다음 그림과가치 顔面筋肉의 결을따러 圓을그리는드시 손끗을움지기며 맛사ー지하는것이 가장 效果的입니다

ウテナ クリーム (コール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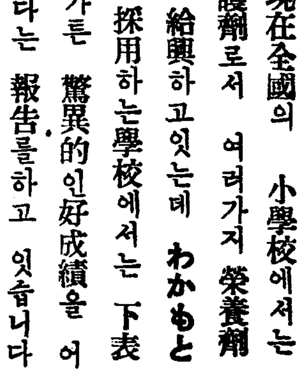
新學期부터元氣잇게工夫
신학기 원기 공부

我國의 小學兒童은 十人中에 榮養丙이 四人이나되고 榮養이나쁜애는 大槪知能成績도 조치안습니다 體位向上을 絶叫하는이때 이러한 虛弱兒의救護에對해서는 學校와家庭과의 緊密한協力이 要望되는대 이에使用되는 養護劑로서는 錠劑わかもと의 好評이노파지고 잇습니다

體重を增す

에기들의 體重은每年一定한 比率로 增加하지안으면 안됩니다 말도살이찐다는 이지음 살이 잘안찐다던지 夏瘦가아직 恢復되지안는다면 今學期中無病으로 皆勤은바랄수업슬넌지도 모릅니다

現在全國의 小學校에서는 養護劑로서 여러가지 榮養劑를 給與하고잇는데 わかもと를 採用하는學校에서는 下表와가튼 驚異的인好成績을 어덧다는 報告를하고 잇습니다



(白線은服用前의 平均體重 黑線은 わかもと服用二個月後의 增加體重)

錠劑わかもと는 發育促進의 비타민B、骨과齒를 頑强케하는 칼슘血肉을 增加하는 高級蛋白 體力의源이되는 구리고겐等의 各種榮養이 豐富하고 조금도 胃腸에害가업시完全히吸收되여 肝油를過食한때와 가튼中毒性은 絶對로업습니다

腹こはし(胃腸障害)に

서늘한바람이부러오면 食傷 消化不良 胃腸가다루等이 벗적만어집니다 에기들의배탈은 무서운痢疾의 一步前인故로 早速히治療하지안흐면 안되는데 허등지등止瀉劑等을 쓰는것은一時的인 素人療法입니다 錠劑わかもと는 헤―헤菌劑特有의强力한 細胞賦活作用을 發動해서 異狀을어르키고잇는胃腸의 粘膜을 細胞組織으로부터 正常케뜨더고치고 消化 殺菌 消毒等의 作用을 活潑케하는故로 應急手當까지 兼한原因的治療藥으로서 賞用됩니다

조금한飮食物에도 탈어나고 或은 寢冷하기쉬운 에기들에게는 平素부러이러한 優秀한 胃腸補强藥을 服用시킬必要가잇습니다

血液から體質改善

虛弱兒의血液을 檢査해보면 酸性을 呈하고 全身이酸毒症을 어르키고잇는것을 알수잇습니다 이로因하야 조금 글킨 傷處하나라도 化膿하기쉽고 또감기를걸리기쉬우며 한번病에걸리면 恢復이늣고 腦神經의活動도 鈍합니다

酸毒症은 主로卵、肉類、菓子等의 偏食에原因하지마는 錠劑わかもと에는 酸性의血液을 健康한 弱아루가리性으로 化하는物質이 含有해잇는우에 顯著히食慾을 增進해서 飮食을가려먹는 버릇이저어집니다 故로이것을 쓰시게되면 不知不識間에 虛弱한體質은 改善되고 頭腦는 明快敏活케되여 體位와成績을 同時에向上시킬수가 잇는것입니다

婦人의保健藥

榮養增進과胃腸强化를兼한 錠劑わかもと는 맛도나뿌지안코 [illegible] 먹기조흔點으로 婦人들에게널리 愛用되고잇습니다

胃腸 榮養 複合ヘーフェ菌劑 錠劑 わかもと
와 가 모 도

藥價低廉 一日僅か數錢

三百錠 二十五日分 一圓六十錢
十歲前後의兒童에는四十日量 五歲前後에는五十日量 三歲前後에는六十日量에 該當함
徳用千錠入 五圓 慰問袋用 五十錠
東京市芝公園 株式會社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
振替東京一七〇〇番・電話芝代表一一七五番

年六百名釋放者中 半數가 再犯入獄

出獄時再生悔悟도 環境惡으로 水泡化

開城少年刑務所少年囚動態

【開城】 불도우화 시설이완비해간다는 현대사회의이면에 범죄소년이 연년증가한다는사실은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현재 개성소년형무소(開城少年刑務所)에 수감되여잇는 범죄소년은 이백사십일명인데 작년수감수인원백오십여명에 비한다면 실로구십여명의증가를 보혓는바 이들은대개 십오세부터 십팔세까지의미성년이라한다 그러데그형기는일년반이 최고로 매년육백여명의 석방자를 보히는데 놀리지마라 그중 오할은 석방된지 일년이 머다하고 재범(再犯)이란 락인이찍혀 다시감옥을 차저드러 오게된다고한다 그래금년 동형무소에드러온 재범소년만도 백명이나된다는바 이들이석방될때는 반성과 참회의 눈물을흘리며 재생의 희망을 가득히안고나갓것만 다시 죄를 범하게되는그원인을 동형무소 당국자의말에의하면 첫재부모의보호가 업고 의식주가업고 교육이업는 이들은할수업시 다시죄의길을밟게된다고한다그래형기를마치고세상에나와야사고무친해서 의탁할곳이업고사회는 전과자라 위험시해서 배척하는때문에 주림에 울고 희망에 지친그들의환경은 다시죄인의 심연(深淵)속에 빠지고말게되는것이라한다

猶豫못할 少年救護

保護機關이 急務

現機關은 九牛一毛格

별항보도한바와가티 청년소년소년의 전과자라는"레텔"을 부치게되는 원인은 성년들의범죄와달리 단순히 보호자가업고먹고잘곳이업는 때문이라는바 사회는 그들의죄지은 동기를생각할때 석방자에 대하야 따뜻한 동정으로 이들을 수용하고 보호할자비심을 환기시켜야할것이다 그러나 현재형편으로 보면 매년석방되는 범죄소년은 육백여명을 산하고그중 부모친척이 업서 갈곳업는소년들이 구할이나되는데 이들의 보호소라는 개성대성회(開城大成會)에는 그수용자가 불과 열명미만이라하며 따라그재정이란 실로 보잘것이 업서 영성하다하니 이가티 보호기관이 미약하고서야 범죄소년의 박지는 실로무망한것으로 개성인사의 정당한 리해와참다운동정을 갈망하고잇다

大成會某看守 談

「소년의범죄란 병에비하면 불치의 난병이아니라 곳치기쉬운 병에서 만성이되기전에 곳치도만하면 그범죄의병은 완쾌할수 잇슴니다 말하자면 이가튼중대한보호사명을가진곳이"대성회"입니다

그러나개성인사들은 눈에들어나고 명예가 뚜렷이나타나는교육사업에는 동정을 할지언정범죄자의 보호사업에는 완고하다할만큼 동정하지안습니다 생각하면 이이상가는 자선사업 사회사업도 업스렷만……운운」

好壽敦高女校 災民義捐寄託

【開城】 수마에 생명재산을 유린한 관북이재형제의눈물겨운 참상에대하야 가장동정이 노프든처는 개성학생층이다 죽지난이십일에는 또호수돈 고등녀학교(好壽敦高等女學校)직원급 생도일동이 사십사원 팔십이전의 동정금을모아가지고 본보개성지국에기탁하며 기한도들에 멀고잇는 불상한이재민에게 보내달라고간곡히 부탁하고 도라간바잇다

東中讀書會事件 公判日決定

來三日新義州法院서

【新義州】 금년오월하순 신의주경찰서에서 돌연대활동을 개시하야 신의주동중학 (전고등보통학교)학생교원이십여명을 검거한사건은 당시일반에게 큰충동을이르키엇거니와 어사건은 그후신의주 경찰서와 평북경찰부고등과에서 엄중취조한결과 그대부분은 석방하고 다음에서명만은 치안유지법위반과 육군형법위반죄명으로 지난팔일에 신의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하얏섯는데 미원검사(米原檢事)가담당하야 이래취조한결과 단지 치안유지법위반의 죄명만으로 기소공판에 회부하얏는데오는시월삼일 신의주지방법원 적사판사(赤司判事)의주심으로 동법원형사법정에서 제일회의공판이열리게되얏다 피고의 주소성명은 다음과갓다

被告人姓名

本籍 義州郡古津面龍雲洞一二〇三
住所 東京市本鄕區湯島六丁目一〇 藤田壽江方
明大專門部文藝科 俞忠祿(二二)

本籍 宣川郡新府面涇江洞五四四외七
住所 同上
新義州東中學卒業 金順道(二〇)

本籍 義州郡松千面四三七
住所 同上
新義州東中學五學年在學 鄭昌鍵(二〇)

住所 新義州眞砂町一丁目
本籍 寨川郡西面德興洞四三八
新義州中學卒業生 金用萬(二〇)

本籍 龍川郡楊西面龍岩山洞一二五
新義州東中學五學年在學 李昌權(二〇)

本籍 義州郡義州邑東部洞三六
住所 東京市杉並區[illegible]北町二二
東京白商業學校四學年生 崔貞鋼(二〇)

전기여섯명의 범죄사실 내용은 유충록(俞忠祿)은 신의주 공립고등보통학교 사회년때에 선생배척사건의 주모자로 퇴학처분을밧고 동경법정대학(法政大學)예과(豫科)에 다니다가 다시작년사월에 명치대학(明治大學)전문부문예과(文藝科)로 옴기가수학중인데 불온한사상을품고 작년말에 [illegible] 구월내지로부터 도라와 금년일월까지 신의주에서 묵으며 신의주동중학재학생 정창건(鄭昌鍵) 김순도(金順道) 이창식(李昌植) 등의학생으로 도라다니며 불온한 계획을 꿈꾸고 잇섯다 또전기 조이택 정창건은 조선의이택 김용만(金用萬)과 가치 유충록을 중심으로 여섯명이 한단이되야 다수한 좌익서적을 서로회람하며 때로는이론투쟁을하고 또동지획득의 목적으로 학교생도에게 서적을 빌려주어 탐독케하얏다 그뿐아니라일지사변에 대하야 여러가지 유언비어를하얏다는것이다

虎疫地漁船二隻 牙山灣에 入來?

【牙山】 평남, 황해양도등지에서 호열자가 발생하엿다는 소문이 들자 충남각경찰서에서도 만일을 염려하여 미연에 방지코저 예방주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동시에 각포구에는 어획과 생활을 주의를시켜오든중인데 지난십구일경에 모처로부터 당지 온양경찰서에 도착한 정보에 의하면 평남근처에서 상선(商船)두척이 아산해(牙山海)로 [illegible] 와다는 숫자가 잇스므로 온양서(溫陽署)에서는 예년이가까운 [illegible] 인주(仁州) [illegible] 선장(仙掌)등각 주재소로 동원을 발하여 방금 어선의 종적을 엄밀히 조사중이라고한다

高句麗文化發掘

平壤博物館秋季發掘施行!

캐여질寶貨는무엇?

【平壤支社發】 이번에는 또무슨 진귀한 보물이나오려는가? 우리선조들이 땅속에 남기고간옛날의 유적 고물이 고고학자들의 『과학의호미』끄테 뒤이어 세상에 나타나고잇는동 평양박물관관내의 금년가을의 정기발굴(定期發掘)은 오는시월초순부터 대동강하류 원암(猿岩)부근에서 시작되려는것이어 호열자의 창궐로 계획을 변경하야 평양상류 주암산(酒巖山)부근과 상오리(上五里) 일대에서 캐내이게되얏는바 이일대는 고구려(高句麗)시대의 사원(寺院)과 궁성(宮城)이 잇든곳으로 발굴의 첫녀지대인만큼 그성과는 크게주목기대된다

運航停止緩和!

石炭、薪炭、穀物의輸送等을

平壤과上流만은許可

【平南支社發】 호열자창궐로인한 대동강의 선운을 정지하고보니 그로인한 지장과 불편은 상상이상이엇다 제일 중요한것이석탄운수불능으로 인한 연료계(燃料界)의 타격 [illegible] 운수불능으로 인한 나무갑의 폭등과곡물운반선(穀船)저지로 인한 평양부내교통의 불편 [illegible] 어에종사하든 수상노동자(주로선부)의 생활곤란이다 어에 관계당자들의 진정에의하여 당국에서도 신중히고려한결과에 방역사와 경찰당국과의협의 결과 한우에 이십사오일경부터 당분의 다섯가지의 특수선에만은 평양과 상류가만은이정의운행을 허가하기로되여 나무갑도 다소완화하게되엿다

一、평양부내의도선

一、사간지로부터의 때목(流筏)

一、숯배 신탄(薪炭) 곡물(穀物)운반선

一、자게배 [illegible] 채취선(採取船)

振威에 竊盜!

一夜八處에侵入

【中通】 농촌에 칠호(七戶)도 지나고 바야흐로 지러가는 가을철이닥처온이때에 하룻밤에 여덜집이나 침입하야 백미고초등속을 도적해간 대담무쌍한절도가 진위군하에 발생하야주민과 경찰을 놀내게한사건이잇다 즉 지난구월십삼일밤에 진위군팽성면남산리(振威郡彭城面南山里)에는 수인조로 추측되는 절도가 동리강대완(姜大琓)의집울타리를 뚤코드러가서 독속에너어둔 백미여덟말과 보리쌀엿말을 읏지하야 리상준(李象俊)의집에 드려가서 고초열말(한가마)을가저갓스며 또유진만(兪鎭萬)의집에 가서도 고초닷말을 가저가고리범규(李範奎)집에 가서는 사[illegible] 하나를 가저가고 [illegible] 역시 창리를 뚤코 드러갓스나 마방의구들이 자지안코잇는 [illegible] 하나도가저가지못하고 [illegible] 절도미수로나가것을 [illegible] 사일 아침에 피해당한이집에서발견하고 놀내어 곳정당에신고하얏슴으로도 당지주재소에서는 대경실색하야 부근일대의 가택수색을하는동 범인수사에 맹활동중이라한다

大田臨時府會

【大田】 대전부(大田府)에서는오 [illegible]

全朝鮮中等蹴球

各地百餘名健兒의參戰裡에

明日平壤에서遂開幕

【平南支社發】 구도(球都)평양의 인끼를 총집중하는 평양의전조선중등학교축구대회는 기보와가티 조선축구협회(朝鮮蹴球協會)주최와 본사평남지사후원으로 개최되는제구부 [illegible] 외전구장에서 개최하기로되엿다 이십이일까지 참가신청마감을 [illegible]

◇大會任員

[illegible]

大城津建設計畫

起債不許로挫折

時局關係●市民失望

【城津】 부제실시(府制實施)를목전에두고 날로 근대도시로서의 모든시설(施設)을 정비하려는성진(城津)에 키다란걱정이 생겻다 작년도부터 시가지 계획령(市街地計畫令)에의한 시내구화정리(區劃整理)는 공비 십일만팔천원으로 공사가 진행되는바 또다시 지난번 읍당국에서 예의입안(立案)하야 총공비오십만삼천원예산으로 소화십삼、사、오、삼개년계속할 구획정리안(區劃整理案)은 일쪽부터 당국에기채인가(起債認可)를 신청하엿든중 요지음 길봉(吉鳳)읍장이 상경(上京)하야 총독부 당국과 절충하엿는데 내무당국의양해는 어덧스나 결국비상시국관계로 재무당국(財務當局)에서 최후양해하야 대성진(大城津)건설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무기로 년기(延期)되는 동시에 사활지민에게 가장시급을 요하는 상수도 확장(上水道擴張)예산 육만원도 철배급통제(鐵配給統制)로 말미아마 말조차 부치지못하게되여 전부휴지에 도라가고마러 관계요당국은 물론 시민의 실망이 크게되엿다한다

舍人場에 女詐欺師

家庭婦女等五十餘名을欺瞞

巨金을騙取高飛遠走

【舍人】 얼마전 평양에서 옮어나온 인테리여성사기사건은 아직 일반의기억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이번은 순천군사인장 (順川郡舍人場)에서 히세의 여자사기사가 또나타낫다 주소를 순천군사인면사인리 오십팔번지에두고 사인장역(舍人場驛)환성(丸星)운송점이부로잇든 정모(鄭某)(三一)의 처 백연화(白蓮花)라는 여자는 부근일대의 부녀층은 대금업자등까지 무수한 시민에게서 흑은수백원 흑은수십원식 교묘히 거두어 설로 수천여원의 거금을 편취한후 지난이십일 어디로인지 고비원주하엿다는바 그피해자중에는 특히 가정부녀를 어 대부분으로 오십여명에달한다고한다 그피해액은 현재판명된것만도 열천오백여원에 달하는만큼 그의 비밀에부치는 일반부녀의 피해를 계산하면 설로 거액에 달할모양이므로 경찰에서는 즉시 각지에 수배하야행방을 엄탐중이라한다

計畫은數年前부터 債權者들大騷動

병창ᐟ그편지한경로를보면 수년전부터 범행을한모양으로 처음에는 일반 가정부녀들과 연락을 취하야 생활비에쓴다고 시현적으로 소액의 일시채금을한후에는 리자를 몰분후히 출판 아니라 사채등등을 중정하는등 가진수단으로 신용을어더오다가 얼마전부터는 교묘히 속여서십원이상 최고 이백십원정도까지 닥치는대로 모화가젓다는바흑은 채용증서 혹은 가옥저당까지를 잡힌모양이나 그것은 모두자기 남편의 실인이 아니라 위조인장인것이 판명되엿스므로 피해자측 부녀들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일반 대금(貸金)업자들까지라도 모두다망하야 대소동을 일으키고 잇다 그리고 어구동성으로 떠드는말ᐟ"내돈만흔지는훔쳣고 속앗소"하며 흑은아들 딸들의 생일돈 혹은 집을 팔든 혹은 소를 팔든 모두가 피와가티 생각하는 돈들이라고 어렵까워하고 엇는중인데 그피해자와 일부를 보면 다음과갓다

◇判明된被害額及被害者一部

▲李根榮의母及妻 一百十圓也 ▲鄭承周의妻五十圓也 ▲朴熙泰의妻六十圓也 ▲趙希慶 五十圓也 ▲黃鎭琪의妻二十圓也 ▲金俊模의妹 一十五圓也 ▲朴永吉의母二十圓也 [illegible] ▲車宇鎭의妻 四十五圓也 ▲金俊慶氏妻五十圓也 ▲金炳律의妻 六十五圓也 [illegible] ▲金昌綱의妻三十圓也

어상 한개만보아도 어십오명의 피해액은 일천오백칠십구원이나 되는 놀나운 수자에 달하고잇다

男便 鄭某 談

그런데 전기 백여 그런 범행을 남기고 도망처버린 어유는 어데잇슬가? 그는 떠나기바로 수일전에 그남편 정에게는 서내강모(康某)의 딸(二)을 첩으로 어더주엇이 엿다는바여직도 설하에는 자녀가 하나도업서서 항상비관하고 잇섯든만큼 그것이 멀리 떠나고저 결심을 하게된듯 하다고한다

「나는 저난이십일 평양을 갓다겟다기에 그냥미덧드니 온다든 어제네시차까지 소식이 업섯습니다 큰일인가요 어제밤괴해자들의 소동으로야 비로소 알엇고 어런일이 잇슬줄은 꿈에도 몰낫습니다 가옥전도 업고 엇지할바를 몰으겟습니다……운운」

鎭南浦防疫强化

勤勞報國隊、海運關係者、警察官總動員

海上警戒、菜蔬消毒等에必死

【鎭南浦】 평남일대에 진남포에 발생한호열자는 우울촉순과가티 전차만연하여지는 어선일일까지 해상과 육지에서 십륙명의환자를내고잇다 그래서 진남포경찰서에서는 저난이십일일 오전십시부터 진남포공회당에 다수관계자를 초청하고 금후방역에대한 대책을 토의하엿다한다 기보한바이니와 금후해상과 육상을 엄중히경계하여야겟다 그래서 각리에서는 근로보국대를총동원시켜 매일세번식 소독발표하면서 검병조사를 행하기하고해상은 부내해운관계자를 총동시켜 발동선을 가지고 연안의 선박검사와 해수사용의 취체를 엄중히하는일방 경찰서에서는서원을 부내각요소에 배치하고 인근에서 드러오는 채소는 전부 소독하기로 되여 어십일일부러 일제실시하고잇는바 어십일일까지 진남포에 발생된 환자는 [illegible] 와갓다

▲九月九日 龍岡郡多美面 玉行 [illegible] 眞性死亡

▲九月十五日新南浦 [illegible]

▲同日 [illegible]

▲九月五日 [illegible] 眞性死亡

▲九月八日 船夫 林千福(二) 眞性死亡

▲九月十七日 住所不定 [illegible]

▲九月十八日 [illegible]

▲九月十九日 [illegible]

▲同日 新浦 [illegible]

▲同日 船夫 宋[illegible] 眞性死亡

▲九月廿日 船夫 [illegible]

▲同日大國里 李花實(三) 眞性死亡

▲其他保菌者一名

物資需給調整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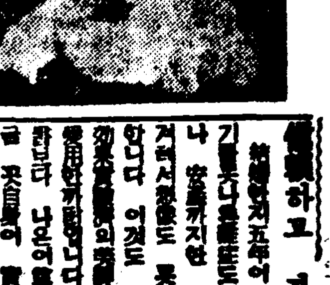
忠南에三名配置

【大田】 물가조재와 물자수급의 조정을 전지경제하의 산업경제으로 총독부에서는 그중요성에 감하야 사삼국에 물자조정관을 신설하고 각도에 어사무를취급할물자조정원(調整員)도는 기수를배치하야 중앙지방을 통하야 사무의 원활화(元化)를도모하야 전시가도에 [illegible] 원하려라는바 충남도에서도 물자수급조정사무를 취급하는동의 자삼명을 배치하리라고한다

照明彈

진남포 모주식회사에서는 모동의 의 [illegible] 회에서 결정하엿다고 ◇ 어것이 사실이라면 물론 그회사발전을위하야서는 가장양책이라고 할지모르나 현하시국을보아 [illegible] 그러도 그러도하면 회사를위하야는 [illegible] 소비한다면 또몰르거니와 [illegible] 문제? (鎭南浦)

婦人病·月經不順·冷症도 家庭에서秘密히고친다



[illegible] 結婚後五年 [illegible] 이지난 去十一年六月 처음으로 [illegible] 試驗的으로 [illegible] 本年 [illegible] 安産하엿슴니다 (大阪東北部 [illegible] 山村久園ふみ代氏의體狀과寫眞)

[illegible] 지금 곳

無代進呈

帶下の婦人病 全快者가 만흔가!

美神丸

本舖 合資會社 宮內善進堂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二ノ十五

運命鑑定所 松谷 李鳴鶴先生 京城[illegible]

齒痛に ソレ 今治水

우수한치림약 리베-루 염려말고、의심말고 꼭한번시용하시오 五日分 貳円五十錢 大阪市東區南久太郎町 竹村製劑所 各藥店에잇슴

麻雀 自家製造 東京淺草藏前 下方屋 俱樂部向·家庭向·牌彫直改色 カタログ呈

學生募集 舊名滿洲自動車學校 改稱滿洲自動車專門學院 每月一日新學期開始 奉天自動車株式會社附屬 奉天商埠地十一緯路五五·電話(二)二九四四番

京城府仁寺町一七八番地(寺洞四街里) 內科小兒科 姜內科醫院 醫學博士 姜聲郁 入院室完備 電話光二六六五番

고추가루 標苦草製粉 星 丸星商會 釜山府瀛州町市場通 (時價表進呈)

肌の要求にピッタリ! 살결의 요구에 꼭드러맛는

滲透하는 榮養과强한 殺菌効果는 참으로 살결을히고곱고젊게한다……

세방 살에 必要한것은 살미테까지滲透하여 포동포동한 젊은살결을맨드는 정말 榮養効果입니다。マスターバニシングに 應用한 皮膚專門의 젊어지는 榮養素ラセランの滲透力은 科學의國 獨逸特許의 比類업는 効果이므로 少量으로도 살을彈力잇게하여 强한 殺菌効果로有毒菌을完全이 막어서 여드름뾰로지 거치러지는것을豫防하고健康한 血色조코아름다운젊은살결을 맨드러줍니다。

부드럽고산뜻하게化粧下에 一等!

マスタークリーム 마스타크림 바니싱

有毒菌을完全하게防止하고面刀한뒤에最適!

ワシミルク

健康 發育의 秘訣

育兒에 最良 保健에 最適

藥店食料品店에서 販賣

K4-38

米取引의商慣習 年內自由渡賣買
今年은根絶될모양

米穀出廻에잇어서 오래동안의 商慣習으로서 年內自由渡의賣買는 例年新穀期를 中心으로 數十萬石의契約이잇고 期間不渡問題를 惹起하야 內鮮間紛糾를惹起코잇는바 右는本新穀期에는 全혀中絶狀勢로되어 米取引上에 新機軸을 보일形勢이라한다 이것은

一、前年度米價의 先高에依하야 不渡問題를惹起하고 産地側이 猛烈한價格을바덧고 買方도受渡代用이 어그러저서 雙方이 모두큰打擊을바든것

一、本年은實際上 右賣買를阻害하는 材料로서 海運運賃의 騰貴를不許하는實狀이오 受渡가安心치안흔것

의두가지가 直接原因인듯하다 그러나 米取引의 右年內自由渡賣買取引으로서는 危險性이크고 不確定한것인만큼 이商慣習의改善은 도리어 賣買雙方의利益이 된것이라한다

正租淸算上場 施設整備必要

朝取期米市場의 正租上場은 新穀期부터 實施햇스면하는 意向이나 이것을實施하기에當하여서는 如左한施設擴充이 必要하다

一、檢査의統一을圖하야 乾燥程度를 引上할것=現在의正租檢査는 相當히 統一되여잇스나 다시 檢査等級에依하야 取引할수잇게 統一을企圖하고 更히 業米의 安全化를 圖謀할必要가잇다

二、再檢査制度를 新設할것=現在의正租는 期限이 經過해도 再檢査의 規定을 適用안키이 다 업섯스나 淸算에 上場하야 一定한 期限이 經過된것은 再檢査를 行하야 乾燥減量, 變質其他의 檢査後의 變化에 備할必要가잇는것

三、受渡場所의 擴張과 混分受渡를 勵行할것=正租를 淸算에上場하라면 産地業者를保護하는 意味下에서 産地에서의直接受渡를 認할必要가 잇스므로其條件으로 混分受渡가必要하다 그러므로混分受渡를完全히 實行하라면 現在의倉으로는 賠償責任問題가 發生할때에 이것을賠償할만한 經濟的基礎가 업서 信賴할수가 업스므로 道單位의 聯合會를 結成하든지 그러치안으면 米倉會를擴大하야서 이것으로써 强固한 基礎를 가저야 할것

四、混合保管制의 實施=混合하야 上場할때에 産地受渡를 認치안흐면안될 形便인데 다만 産地受渡만을 認한다면 産地業者는 正租를淸算에 賣繫할수는 잇스나 이것을 玄米原料로서 買하야 受取키자니困難하므로 混合, 保管까지 實施치안흐면안된다

五、代行會社設立=現物을가지고 淸算에 賣繫하는사람을爲해서는 金融의便利를圖하고 賣買, 受渡의圓滑化를 企圖하는 것이必要하다

金買上價引上論
對米換算·十五圓十錢으로
國際市場追隨가當然

産金買上價格은 지난 五月一日부터 一瓦에 對하야 八錢식 引上하야 三圓八十五錢(一匁十四圓四十三錢七厘五毛)으로 改訂(鮮銀의 實際買入價는 手數料를 除하고 一瓦에 三圓八十三錢六厘, 匁은 十四圓三十八錢五厘)하고 다시 買上價의 引上論이 提唱되는것은 매우注目되여잇다 即今年五月에 改訂된 産金買上價의 決定은 從來의 對英基準(一志二片換算)을 對米基準으로 改訂함과 함께 從來의 世界市價와의鞘(마-진)를 거의 撤廢하엿다 이것은 産金獎勵에 依하야 積極的으로 産金增加를 企圖하는 國策에 基한것이엇다 그러나 最近情勢를 볼것갓흐면 米國의 金買上價格은一『온스』에 對하야 三十五弗으로 이는 不變이나 對米爲替는 前回改訂 當時의 二十九弗丁으로부터 最近은 二十七弗九十七仙에 까지 떠러저서 一九三五年 三月以來의 新低價를 出現하엿다 右의 爲替市勢를 三十五弗로 換算하면 十五圓十錢가량이된다 따라서 換算市勢를 그대로 産金買上價格으로 採用한다면 一匁에 對하야 六十錢식 引上되는 셈이다 産金買入價格을改訂할때에 當面하여서는 最近三週間의 平均價格을 基準으로하는것이 前例로되어잇다 그러므로 最近三週間의 平均市勢는 十四圓九十錢內外이나 그래도 現在買入價格에比하야 五十錢上朝이다 倫敦金塊市勢도 最近歐洲情勢를 反映하야 其動搖는 極히大幅이므로 直時이國際市勢를基準으로 內地買入價格을 改訂한다는것은 多少時期尙早이나 國際關係의 現情으로보아 相當한期限에亘하야 金塊市勢가 强調를持續할것은 勿論이므로 따라서 適當한時期에잇어서 買入價格의引上을 實行하는것이 當然한措置라고 提唱되여잇다 國際貸借決濟用資金으로 金이 必要하다는것은 非常時局下에 잇는 我國에잇어서는 第一먼저 痛感되는것이므로 産金增加計畫等에對하야 여러가지 手段이 考慮되는것은 必至한現狀이다 따라서 여기에 一對策으로는 國際市價에 追隨하야 國內의 産金買入價格을 引上한다는것은 增産獎勵도되고 一面海外로나가는 密輸를 阻止하야 一石二鳥의妙案이라고도 할수잇다 最近法幣의低落에依하야 上海市場에서는 金一匁二十圓을 넘는高價를 示現시킨것을 反映해보아서라도 其必要가 매우 緊要한것이라한다

銀行支店網擴充
地方經濟의躍進에順應하야
二十三日中에多數認可

銀行의支店, 出張所新設에關하야서는 從來當局에서는 金融統制方針으로서 消極的態度를가지고 抑制方針으로 進하얏스나 最近의 朝鮮內地方經濟의躍進에應하야 또는 貯蓄獎勵의必要도잇스므로 地方金融網整備의見地에서 旣存機關과의摩擦을生치안흘 地點에는 새로이 有銀行의支店, 出張所設置를 認可하기로되엿다 그리하야 이미 今春來의 支店設置認可가 增加되엿는데 二十三日中에 左記諸行의 支店新設도 認可되리라한다

▲朝鮮銀行 咸興支店
▲朝鮮殖産銀行 慶北安東支店 羅津出張所의支店昇格
▲東一銀行 堀川支店, 合德(忠南)出張所
▲商業銀行 淸津浦項洞出張所

右外에漢銀, 東拓等의것도 認可될豫定으로 當局의金融網整備方針은 注目된다한다

集貨, 配達付貨物
"通關手續"代辨
鐵道局에서取扱開始

鐵道局에서는 十月一日부터 朝鮮內稅關所在地驛發着의 集貨配達付貨物의通關手續은 鐵道直營으로 代辨取扱을開始하기로되엿다 여태까지 荷主가 直接이手續을하든 煩雜와費用이 輕減되어 매우 便利하게된셈이다 代辨하는 貨物及小荷物에對하야는 새로 手數料를 收受하기로되엿는데 內地朝鮮間發着은無料 滿洲方面發着은 輸出又는 輸入할때마다 一口에對하야 小荷物은十五錢 貨物은 四十錢을받기로되엿다한다

京城見本市 盛大히開幕

京城商工組合聯合會及 京城卸商聯盟會共同主催의 京城見本市는 二十三日午前九時부터 長谷川町公會堂에서 開市되엿는바 二十四日까지 二日間에 亘하야 行할터이라한다 參加店은 四十五店으로

漁油入札 油肥統制의第廿六期鰯粕

賣上高는 大體五十萬圓程度가 豫想되는데 參加店에서는從來와 가튼 先物契約을 避하고 現物主義에 依할 方針이라한다

簡保積立金運用(十四年度)
千四百七十萬圓
十三年度第二回融通도配定!

朝鮮簡保事業諮問委員會는 二十三日午前十時三十分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會하고 會長大野政務總監以下 各委員이 出席하야 十四年度 運用計畫과 第二回融通配定額에 對하야 愼重審議한結果原案대로 可決하얏다

一、昭和十四年度積立金運用計畫 昭和十四年度積立金運用總額을 千四百七十萬圓으로 豫算하고 이것을左記와가티 配定하기로되엿다

償券引受에	五百七十萬圓
契約者貸付에	百萬圓
國債購入에	三百萬圓
公共貸付에	五百萬圓

本年度에는 二百萬圓의國債를購入하얏는데 明年度에는 百萬圓을增加하야 三百萬圓을 이에充當키로되엿다 公共貸付의 利率은 從來事業의種類에 依하야 年四分 四分三厘 四分六厘 五分의四階段이 엇스나 最高의分인五分을 四分八厘로 引下키로하고 또償券引受의利率에 對하야서는 從前대로市場의情勢에 依하야引受할때 마다 決定키로되엿다 또時局에 鑑하야 國債消化에協力할意圖에서 五百萬圓을 가지고 國債消化에協力할意圖에서 當局에서

二、昭和十三年度積立資金第二回融通配定額

(一) 公共貸付의道別件數金額

道	件	圓
京畿	八	二二三、三〇〇
忠北	九	六九、七五四
忠南	二一	一〇九、八五〇
全北	一〇	八八、一〇〇
全南	二	七、三〇〇
慶北	一一	九九、〇〇〇
慶南	一二	一三九、二〇〇
黃海	二	六、四三三
平南	五	二五、九〇〇
平北	八	一四一、〇〇〇
江原	一	二八、五〇〇
咸南	四	一〇五、二五〇
咸北	三	[illegible]
計	九五	一、〇三三、五八七

右를 公共貸付의事業別로 示하면 如左하다

公益質屋	一	一〇、〇〇〇
災害復舊及救濟資金	一	五、〇〇〇
公設市場	一	一四、〇〇〇
下水道	一	六、二〇〇
農用林地	二	一六五、二〇〇
上水道	一	九九、〇〇〇
小學校	八〇	五一三、九八七
中等學校	一	一〇〇、〇〇〇
府廳舍及邑面事務所	三	八、五〇〇
産業共同施設	一	一〇〇、〇〇〇
乾繭場及取扱場	一	二、五〇〇
河川改修事業	一	五、〇〇〇
水利及土地改良事業	一	四、二〇〇
計	九五	一、〇三三、五八七

(二) 地方債의引受 全州府債 二七、〇〇〇圓 光州府債 九〇、〇〇〇圓 木浦府債 九〇、〇〇〇圓 大邱府債 五五、〇〇〇圓 鎭南浦府債 一二八、七〇〇圓 江原道債 二六〇、八〇〇圓 合計 八六九、四〇〇圓

自動車統制
朝運增資
七百萬圓으로

朝鮮運送을 中心으로하는 全朝鮮의自動車統制는 鐵道局의統制方針에順應하야 積極的으로 進行되고잇는바 朝運은이에依하야 統制資金이 必要하게되어 過般來河合同社專務는 渡東하야 村上社長과 此點에關한 協議를한結果 大體現在 資本金四百二十五萬圓을 七百萬圓으로 增資하기로內定하고 來年初에 實行에옴기기로하엿다 增資에關하야서는 이미 鐵道局의內諾을어덧고資金調整法에依한 認可關係도 諒解되엇다 또自動車統制는 地方自動車會社에서 相當히合倂에對한 申請이잇서 鐵道局의 國策에依한自動車統制는 意外로進捗될것으로 期待되고잇다한다

朝鮮內 計畫資本
八月中異動狀況

京城商工會議所調査에依한 八月中의朝鮮內會社의 異動은 本店에잇서서 新設六十三社 公稱資本一千百十九萬九千圓 拂込金七百六十四萬三千圓, 增資十六社, 公稱二百八十五萬五千圓, 拂込百二十九萬五千圓이오 拂込은 十三社 拂込資本金一百十萬七千圓, 減資로는三社, 公稱資本六萬圓拂込資本六萬圓, 解散月末現在數는 社數五千二百八十八社 公稱資本金 十六億六千百六十三萬一千圓 拂込資本金 十億三千四百二萬七千圓인바 新設會社中主要한것은 天安産金興業(五千萬圓) 日本産金山(二千萬圓) 朝鮮化學肥料(二千萬圓) 咸興合同森(一千五百萬圓) 朝陽鑛業(五百萬圓)等이다

品種別適期刈稻
徹底히實行식힐터

總督府에서는 適期刈取를 獎勵하기爲하야 各道로 하여금 道內에잇서서 刈取의 適期를 詳細히調査를 行하라는 通告를 發送하엿는데 調査完了한것만의道의適期를 左와如히알리여왓슴으로 總督府에서는 이時期에잇서서 刈取를 徹底的으로 實施할方針이다

京畿道	
豐玉 多摩錦	九月二十五日
中生 銀坊主	九月二十五日
穀良都	十月九日
江原道	
陸羽 一三二號	九月三十日
中生 銀坊主	自九月三十日 至十月五日
多摩錦	十月十日
錦	十月五日
平安南道	
陸羽	自九月二十日 至九月三十日
愛國	自九月二十五日 至十月四日
黃海道	
瑞坊主	九月二十一日
銀坊主	九月二十七日 十月十日
赤神力	
咸鏡南道	
陸羽 一三二號	自九月廿五日 至十月五日
咸鏡北道	
小田代	自九月二十九日 至十月五日
津輕早生	九月二十五日
早生大野	九月二十五日 三十日
忠淸北道	
錦、中生、銀坊主、豐玉	自十月五日 至十月十日
全羅南道	
多摩錦	十月十八日
銀坊主	十月二十日
榮光	十月二十日
雄町	十月二十五日

가마니價格公定?
全朝鮮一律統制至難

新穀出廻期를압두고 將用叺配給統制는 産業協會를 統制主體로 하야 穀物協會, 獎勵當局이서로 提携하야 各道의指定叺會社로하여금 直接配給시킬方針을 樹立하고잇는데 그運用에際하야 가장重要視되는것은 叺會社의買入及 販賣價의公定으로서 目下總督府 産業協會 穀協三者間에서그 設定을 急히하고잇는바 左의諸事情에依하야 全朝鮮一率的統制는 자못困難할것으로 보인다

一、現在各道의 買入價、販賣價가 區區한것

二、檢査手數料가 各道마다달르고 또한 全然히徵收하지안는道가잇서 此際이것을 統一하려면 中間經費節約의 立場에서 檢査手數料撤廢가 主張될것

三、原料藁 其他 諸經費가 各地方마다 顯著한 差異가잇고 一定하게 統一할수업는 地方的事情이잇는것

等으로 表面的販賣價를 統一하면 이여서 顯著한 差異가잇서 生産者의 手取가 各地方마다 달러지고 生産者의 賣價를 統一하면 表面販賣價는 自然히高低가 생기게될것으로 어느程度의 格差는 不得已한 事情에잇서서 總督府當局이 此間의 諸經費를 如何히 推定하고 또 叺檢의 手數料或은廢合의 手數料等을 如何한方法으로 統制할가하는것은 延하야는 指定叺會社의 手數料決定에 影響이미치므로 關係者의 注目은자못크다한다

株式 細刻 閑散裡에

前場閑散 今朝는 外電低와 東阪地의 休日을압두고 關係上 二日繼續의 軟調를이어 東新一日 一低인 百四十六圓七、鐘紡七低인 二百二十五圓四로 區區裡에 寄付後 依然한 刺戟材料薄으로 極度閑散場面이여서 一進一退를거듭하다가 結局 東新六圓五 鐘紡五圓六에 保合大引

後場同調 後場은 東新三高인 百四十六圓八、鐘紡三低인 二百二十五圓三으로 保合裡寄付後 少幅浮動을 거듭하는데지 나지못하엿다

極度閑散場面 依然市勢는 外來新規注文薄으로 實賣는 다만地場『うごき』側의小賣에 限定되어잇서 僅僅玉關係로 小浮動을 거듭하고잇는터인데 特히市場의 一般人氣는 此邊에서부터 買進하면 漢口의陷落까지는 買疲를 齎來할念慮가잇다하야 高價警戒氣分이다 今期는 外電의一齊 低落에牽制되고 漢口攻略逐漸轉으로 高價에買付하엿든 玉의小整理로 一低를보이엿는데 高價에는 民待의實物이잇서서 高價買는 不添이고 그反面에잇서서 漢口攻略進展은 依然하므로 低價의 突込賣도

今日의市勢(廿三日)

滿業新株削除

滿洲重工業開發株式會社는 來十一月二十六日新株式에對하야 拂込을 徵收하므로 朝取市場은 株에對하야는 左記와如히 取扱키로되엿다

長期取引=十一月二十六日 一株에對하야 十二圓五十錢(最終)徵收新市十二月限부터 五十圓(全額)拂込으로하고 賣買할 株中에서 削除할 十一月限受渡는 一二十二日에 繰上함

短期取引=十一月二十六日 一株에對하야 十二圓五十錢(最終)徵收十一月二十六日부터 金五十圓(全額)拂込으로하고 賣買할株와 新株는 滿業新株同一하므로 新株는 取引中에서 削除

國債利喰押 【東京電話】

二日繼續의 休日을압두고 市場은 겨우 高價一息狀態로되어 小口利喰賣物이 散見되엇슬뿐으로 內價는變化업고 佛貨價는 五錢小弛이엇다 實物도 活氣가적고 甲號五分、二回四分은 五錢低 新四分은反對로 五錢高騰 米價는 五分半六分半이모두 三、四十錢의 利喰低를보이엇다 ▲二十三年物 九八、三〇 ▲米貨五分半 三六七、八〇

月末市勢一考

來十月은 即新米時代에入하는 初期로서 地方出廻가 旺盛할것이라하야 누구나 數段低落을豫期하엿는바이며 또弱氣觀이當得하엿다고 할수잇스나 그러나 此에一考를要할것은 産地農家가 秋收마당에서곳 市場으로 搬出할지가 疑問이오 또低價에 應할지도 疑問이다 그러할뿐만아니라 當中先三期를通하야 地場이모다 實實成하고잇는만큼 月末戰을압두고 當限高를 비롯하야 中限이또 騰程에入하는觀이 잇고 今朝突然 買物이旺盛한 모양이다 實로正米市勢는 三十三圓一二十錢의唱價인양보아 來月에至하야 殷盛新米의出廻가 잇다할지라도 그다지큰 暴落이 어려울듯하야 中限의買出動을 하는 모양이다 中限도또한 當限의比와 手數料가 亦是地場의 實成하는 一般의 어느程度까지의 騰勢는 免치못할것같다

新米로서 渡來에 供하지못하엿스나 今年은 早稻의出廻期가 例年보다 일를 것이라는 觀이데 定히新米로써 受渡하려하 自然叺會社의 影響으로 月初以來三十二圓四、五十錢臺를 中心으로 保合을 支持하야 當限의 攝價는 一向不拘하고 獨自의 步調를 取하여오든바 今朝에入하야 依然 一圓六十錢高를 示現하엿다

期米 一高一下 揉合

前場反高 今朝阪地先限三十五圓三十四錢인 四丁反高를接하고 當三圓三十二錢인 五丁高 中은 二圓五十八錢인 九丁突高로 先限은三十二圓二十四錢인 一丁高로寄付後 阪地八、九節三十六、七錢으로 反高함을보고 兼하야 그餘波를受하야 當限은二節三十八錢 中限八節六十五錢이고 先限은 八節三十三錢이고 結局阪地三十六錢을보고 三十三錢에 反戾止揚하엿다

後場更落 後場은 三十二圓三十一錢인 一丁低로 寄付後二十四錢에 反落이고 四節二十一錢으로 五節二十四錢으로

中限又復騰勢

今中限은 即十月限으로 新米期의 限月인데 年例에 依하야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만은 强硬히經辭을 告할모양갓다고云云

正米 品薄으로 昂騰

京城奔騰 天候는 去益順調이나 早稻種의出來와 奧地新租의 乾燥不充分으로 正租의 販賣禁止說에 攝頭하야 所持側은 假供하고잇는터 市場에 材料를 提供하는 的存在가

市場公感

株…東軟西硬 ▲東京은政局動搖說로 軟派가策動大阪은 現實材料主義 ▲依然한 保合圈內의小浮動相場이 極閑散인데 ◀손님이와야 장사가되지…▲場內에는 하품소리만 들린다 ▲언제나 漢口는陷落될가?▲測不能할이 投機의 本質▲掣肘하고잇는限 歐洲不安도 解消되지안흘것▲어不安의 相當

米…富限은今朝三圓二十八錢까지昂騰하엿다가 後의賣叩로 二十五錢까지 反落하엿더니 丸ᄆ의買進으로 다시三十錢으로騰하야 波瀾을거듭하고잇다 그結果가 何如할지는 몰으나 大體買方이勝利◀買方丸福과 賣方金太사이의 富限一部解合이成立되는모양 買方主力側인 金ᄆ及丸ᄆ의態度는 如何?▲何如間富限은 多少만큼 大手側의解이되여할지라도 波瀾은相當할 모양▲一般低落을 豫想하는 米價는 大體反騰하는 光景, 秋來不似秋?

群山不變

새取引를開始햇다 市中은 政府의古米拂下로施設할可望이 업는것으로보아 新米氣分에醉하야 消極的이고 各地淸算高에도不拘하고 二日間의休日을압둔關係와 內注入注薄인데다 買氣一層萎縮되여 小口的賣物뿐으로 市勢도前價同樣으로不變이엇다 ⊘銀坊主三等 三三、一〇 四等三三、八〇 一等白米一四、〇〇

木浦不動

天候는 決定的으로 好順이고 問題視되던 政府買秀實施說도 자최를 감추어 新米의 出廻를 觀望하고 內地入注薄과 浮動米皆無로 市中은 休日을 二日이나 압둔 마바라側의 小口的 當用準備를 除한

仁川昂騰

新穀은乾燥不充分으로 出廻遲延說이擴大하고 又復 期米의關係로 定期大取組를擴張하야 當限의納會를 目標에압두고 賣方이 渡米蒐集에 狂奔인만치 所持側은 强硬態度로 急騰하야 市中의 賣物薄은漸甚하야 唱價도 一躍昂高이고 市勢도十錢乃至二十錢奔騰을 現出하엿다 ㊁穀良三等三三、一〇 四等三三、九〇 銀坊主 三等 三三、三〇 四等 三三、一〇 多摩錦 三等 三三、六〇 四等三三、四〇 一等白米 四一四、〇〇 ㊁一三、九五

釜山續硬

月末接近과함께 市中所持側은 去益强硬態度인데에 內地로부터 指値注文이 잇서서 移出側이 買進하고 二日의繼續되는休日을 압두고 精米側의 當用準備로 前價에는 賣치안하 市勢도 十錢續騰이엇다 ㊁穀良三等 三三、五〇 四等 三三、三〇 一等白米 一三、三〇

大邱保合

奧地로부터新租의出廻소리가 多少飛來하고잇스나 市中所持側은 在庫米薄인때이라 去益强硬態度이고 買方은 依然한 內地入注杜絶로 高價買는 傍觀態度이므로 雙方이모두 躊躇하야 閑散場面이고 市勢도 前日同㮣으로保合이엇다 ㊁穀良三等三三、八〇 四等三三、六〇 一等白米 一三、九五

外에는 주춤 이러타할만한 去來가 업서서 市勢도 不動이엇다 ㊁銀坊主三等三三、七〇 四等 三三、三〇 一等白米 一三、七〇

物價

綿絲布市勢
當分發表中止

數字據所據=京城綿絲布市勢는 市內某大商店의 調査를 商通經由로發表하든것인데 經濟警察關係로 그商店에서 發表치안흐므로組合에交涉하야 公正한市勢를 十月中旬에나 發表케될터이다

松茸暴落

秋의味覺을도도는 松茸는 方今이出盛期인데 全穀咸北大水害의餘波로松茸로 松茸가大農作이어서 松茸市勢는百夏五拾錢一圓하든것이最上四拾錢에서 拾八、九錢에까지 暴落되고말엇다。 그런데 現在京城에 入荷하는 松茸는 每日三貫入 三一五百個에達하는데 主産地는 咸北 富寧 會文等이라한다。

海外經濟(廿三日)

銀行券(廿三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 手形交換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鰯油粕 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滿洲商況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主要株取組◆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七、五七〇 累計 一、一五九、一二〇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合計 [illegible] 本期總計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各地期米◆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絲

◆橫濱生絲◆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現物糖 賣買中價 (ST) 二二、九〇錢 現物D格 七八五錢 [illegible]

京城物價(廿三日)

[illegible]

朝取取引員 吉村榮左エ門商店 株 京城黃金町 米 仁川本町

朝米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康

朝取取引員 昭和證券株式會社 京城明治町二丁目 電本(代表)